

서울시민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이슈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



목차

1. 서울시민 삶의 질 측정
2. 서울시민 삶의 질 현황
3. 서울시민 삶의 질 관련 정책 이슈

1. 서울시민의 삶의 질 측정



01

서울도시정책지표체계,
서울서베이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체계) 도입과 현황

01 |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정책지표, *서울서베이*

- 서울의 현재와 중·장기적인 도시 사회 변화를 분석,예측하는 도시모니터링 체계인 *서울서베이* 역할 중요
- 도시공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현황을 측정하여 시정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서 도시통계 생산

02 | 주요 내용

- 도시정책지표체계 구축 (2003년 구축 지표)
- 행정자료 조사(90여종), 가구조사(20,000가구(가구원 43,737명)), 외국인 조사(2,500명)를 통한 데이터 구축
- 생산된 데이터의 다차원적 분석에 근거한 ‘서울의 사회상 Seoul at a Glance’ 발간
-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정책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

📌 2003년부터 매년 연간사업으로 추진

서울서베이(2003년~2022년) 체계

서울서베이

서울서베이 지표체계

10개영역, 244개 지표

인구와
가구

경제와
생활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거버넌스

복지와
돌봄

가치와
의식

- 지표 및 조사표 개발
- 지역사회조사 타당도 검토
- 실국장 인터뷰 및 수요조사

지표 데이터 구축

행정자료 조사

- 180여종의 행정 통계자료

가구, 가구원조사

- 20,000가구(43,737가구원)

시민조사

- 서울거주 만 15세이상 가구
구성원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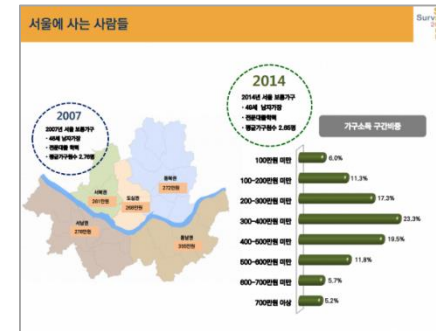
외국인조사

- 서울거주 외국인 2,500명

- 행정자료 수집
- 데이터 품질 관리(현장점검,
전화검증)

데이터분석 및 정책제언

서울서베이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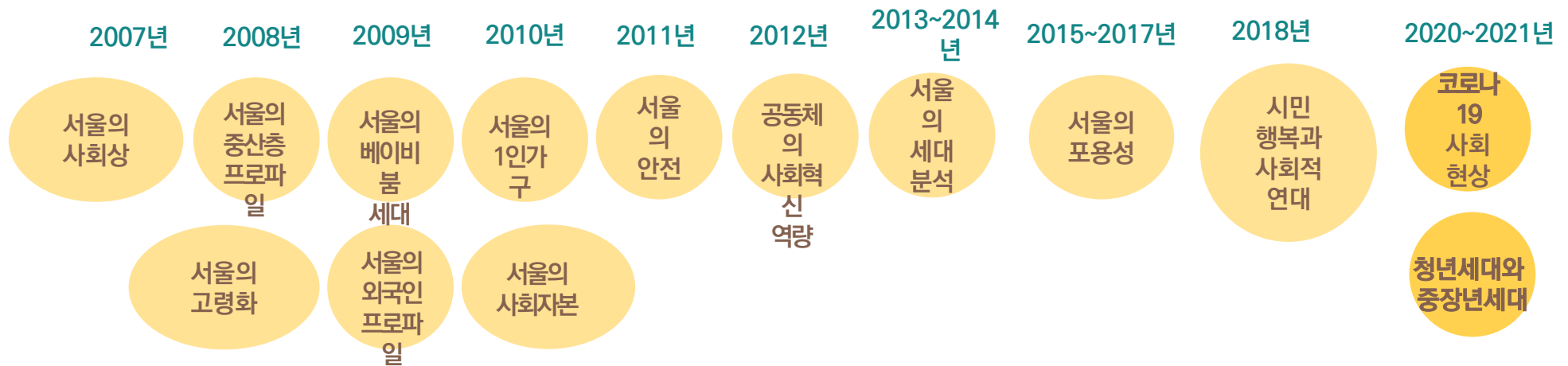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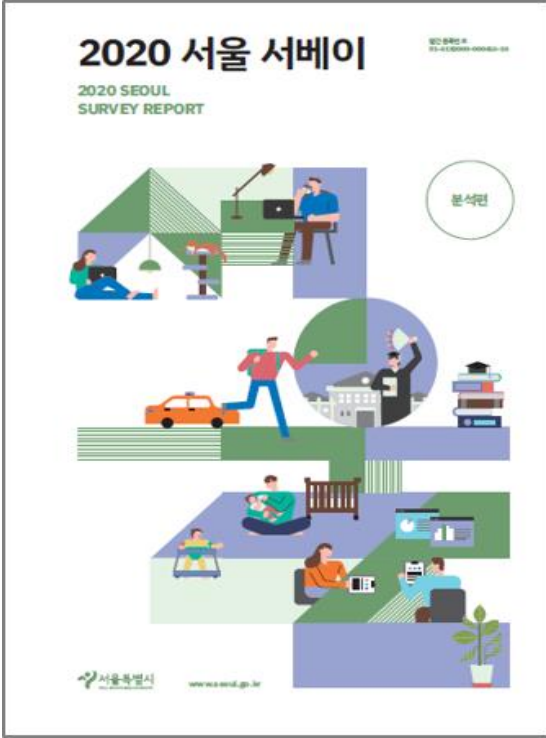
- 서울의 사회상 분석
- 서울시정 방향을 반영한 정책
적 시사점 도출

도시발전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슈 발굴

-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는(Beyond GDP) 사회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발굴 필요
- 축적된 서울서베이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현황 분석

사회적 이슈 발굴





- **서울서베이 분석편**

1	인구와 가구
2	경제와 노동
3	도시생활과 주거
4	건강과 보건
5	안전과 재난
6	환경
7	교통
8	문화와 여가
9	교육과 돌봄
10	가치와 의식

2020 RELEASE

제3장 2020 서울서베이 영역별 분석과 정책함의

제1절 인구와 가구

1) 요약 및 정

줄어드는 인구와 늘어나는 서울, 서울의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의 변화가 필요

[illegible]

사회의 관심과 투자를 2010년 1,015억 원에서 2015년 1,001억 원에 조금씩 변화하며 2015년 1월 1일 수은 유적지보다 2016년 9.94%, 2017년 0.83%, 2018년 0.761%, 2019년 0.717%로 매년 45%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다. 전국 최 저수준의 사슴의 출산율은 한국이 45%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바이다. 사슴의 비탄 주기는 계절은 부암을 사슴에서 수토로 넘어가는 야간으로 야행성인 사슴에서 야행성인 영장류 미치고, 또한 야간의 부암 주기와 고배설을 한 정제식물 토란 속을 사슴의 주 먹이다. 야간의 정제식물 대개 거지견의 뱀독 등 사슴에게 유해이 결론. 사슴을 기르는데 가장 위험하다. 사슴은 2년 10월 19일 종친들은 사슴에게도 갈아치우 2000년 71.75%까지 2018년 52.00%, 2019년 48.26%으로 낮아졌다. 반면, 벌

2

제1장 2020 서울특별시 선거를 위한 준비

굴 초혼연령은 2019년 남자 33.7세, 여자 31.6세로 전국 평균 대비 각각 0.4세, 1.0

1949년부터 훨씬 높아 서울의 인구 고령화가 전국의 고령화보다 빠른 것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인구감소는 4차세계 대전이후 인구와 유출입이동의 인구증가는 서울의 인구증가
를 위한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이다. 서울의 인구증가는 2015
년 이전 전방 단계에서 인구증가세를 볼 수있으며 -0.5%로 감소하고 전방에서
전방으로 2018년과 -1.1%로 비례 증감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서울은 여전히 전
출입인구와 전방인구가 많은 인구유출을 증가한다. 서울이 25개 자치구의 인구를 보면,
전방인구가 더 많은 자치구는 강동구(1.8%), 성북구(1.5%), 송파구(1.1%), 강남구
(0.3%) 순이며 전방인구가 더 많은 자치구는 양주시(-2.7%), 노원구(-2.0%) 순이다.

서양의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서양의 사회·도덕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회가 복잡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단순한 사회로 남아 있었다. 중세에는 신분·종교·지역에 따라 사회가 단층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근대에는 계층·직업·지역에 따라 사회가 단층적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단층적 사회에서 사람들은 계층·직업·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단층적 사회에서 사람들은 계층·직업·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단층적 사회에서 사람들은 계층·직업·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2) 지표설명

• 총연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식용사슴의 총인구는 9,662,041명으

522

2120-484-9991

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총인구수는 2010년에 비해 △426,570명 감소하였으며, 인구성장을 통한 전년 대비 -0.44%로 매우 낮다.



- **합계출산율**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0년 1,015명이었던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을 기점으로 1명 이하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의 합계출산율은 0.717명으로 가장 낮으며, 초저출생 사회의 모습(합계출산율 1.2명 이하)을 보이고 있다.



• 연락처 : 02-3670-4400 또는 02-3670-8222

24



XING AND WANG

제1장 인구와 가구

제1절 서물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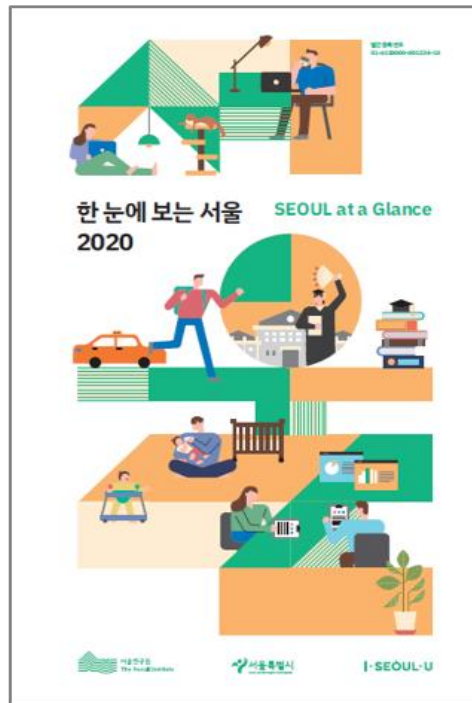
구분	총인구	인구성장률
2010년	10,099,611	-0.50
2011년	10,019,236	-0.80
2012년	9,986,279	-0.33
2013년	9,960,188	-0.26
2014년	9,978,163	-0.11
2015년	9,961,169	-0.34
2016년	9,962,921	-0.04
2017년	9,969,700	0.07
2018년	9,958,540	-0.04

2019년	2018년	비교
가) 1) 2019년 12월 기준 1인당 가계소득은 총소득·사업·배당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것임 2) 2019년 6월에 공표한 「법인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7월 1일 시행 제1호 3) 「국세청」은 국세청과 지방세청에 대한민국의 세무는 「국세청」과 지방세청 4) 「국세청」은 국세청과 지방세청에 대한민국의 세무는 「국세청」과 지방세청		



- 서울서베이 통계편

한눈에 보는 서울_SEOUL at a Glance



• 한눈에 보는 서울

목차	
I.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	004
1. 보통 가구	008
서울의 보통 가구는?	010
서울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012
서울의 3인가구는?	014
서울의 여성 3인가구는?	016
서울의 고령자(65세 이상) 3인가구는?	018
만약 서울을 떠나면 가구는?	020
2. 보통 사람	022
서울의 보통 사람은?	024
서울 청년의 일은?	026
서울 청년은 누구와 사는지?	028
서울의 중장년 가구의 거주/취업과 직업은?	030
서울의 중장년 가구의 경제적 노후는?	032
서울의 노년은 어디로 갈까?	034
서울의 노년은 행복하니까?	036
서울 청년의 행복과 놀이는?	038
서울 여성의 일은?	040
서울의 여권은 안전한가?	042
서울 장애인들의 교통 접근성은?	044
서울의 외국인 주민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046
II. 서울사람의 생활환경	048
3. 생활환경	050
서울사람의 주거는?	052
서울사람의 경제활동 만족도는?	054
서울사람의 근접생활은?	056
서울사람의 소비생활은?	058
서울사람의 건강생활은?	060
서울의 보육환경은?	062
서울사람의 교육환경은?	064
서울의 문화·관광환경은?	066
서울의 복지환경은?	068
서울의 교통환경은?	070
서울의 디지털 환경은?	072
서울의 에너지 환경은?	074
서울의 공기과 물은?	076
서울의 생활환경과 미래는?	078
2. 사회/인간	080
서울의 사회안전성은?	082
서울의 교육안전성은?	084
서울의 재난기여 안전성은?	086
III. 삶의 질	088
건강	090
행복과 만족도	092
영양·행복	094
생활의 질과 만족도	096
IV. 서울사람의 가치	100
1. 영혼과 자립	102
서울사람의 영혼은?	104
서울사람의 사회적 책임은?	106
2. 공동체	110
서울사람의 사회적 포용성은?	112
서울사람은 어떤만큼 친구로 받아들이는가?	114
서울의 세대간 인식차이는?	116
3. 사회	120
서울사람의 사회는?	122
서울사람은 어떤만큼 비정규직/조직원?	124
서울사람은 어떤만큼 사회적 책임을?	126
서울사람은 어떤만큼 사회적 책임을?	128
서울사람의 사회적 책임은?	130
서울사람의 사회적 책임은?	132
334	
참고자료	336
부록	338
서울을 위한 조사	339

Contents	
I. Households and People in Seoul	004
1. Households in Seoul	008
Households in Seoul: Basic Information	010
Households in Seoul: Changes in Household	012
Households in Seoul: Single-person Household	014
Households in Seoul: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	016
Households in Seoul: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	018
Households in Seoul: Pet Ownership	020
2. People in Seoul	022
People in Seoul: Basic Information	024
Young Adults: Occupation	026
Young Adults: Living Arrangements	028
Middle-aged Adults: Characteristics	030
Middle-aged Adults: Household Debt and Post-retirement Preparations	032
The Elderly: Living Arrangements	034
The Elderly: Happiness Score	036
The Youth: Happiness Score and Leisure Activities	038
Women in Seoul: Economic Participation	040
Women in Seoul: Violence against Women	042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oul: Accessibility	044
Foreigners in Seoul: Living Arrangements	046
II. Everyday Life in Seoul	048
1. Life in Seoul	050
Life in Seoul: Residential Conditions	052
Life in Seoul: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054
Life in Seoul: Health Conditions	056
Life in Seoul: Children	058
Life in Seoul: Education	060
Life in Seoul: Culture and Tourism	062
Life in Seou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064
Life in Seoul: Transportation	066
Life in Seoul: Digital Communications	068
Life in Seoul: Energy Consumption	070
Life in Seoul: Air and Water Quality	072
Life in Seoul: Disasters and Safety	074
2. Experiences in Seoul and Beyond	076
Life in Seoul: Fire Accidents	078
Life in Seoul: Traffic Accidents	080
Life in Seoul: Bicycle Accidents	082
III. Quality of Life in Seoul	084
Quality of Life: Overall Health	086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with Health	088
Quality of Life: Exercise Frequency	090
Quality of Life: Overall Happiness Score	092
Quality of Life: Daily Time Usage	094
IV. Seoul Citizens' Civic Consciousness and Values	096
1. Fairness and Equality	098
Perception of Social Mobility	100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102
2. Community Values	104
Community Values: Social Inclusion	106
Community Values: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108
Community Values: Generational Gaps	110
3. Social Values	112
Social Values: Trust in Family, Neighbors, and Public Institutions	114
Commitment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116
Social Values: Commitment to Caring for the Elderly	118
Social Values: Commitment to Gender Equality	120
Social Values: Philanthropic Activities	122
Social Values: Political Participation	124
Seoul Survey	126
A city in order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onitors the changes in Seoul	128
Seoul Survey Index System	130
Seoul Survey Methodology	132
Applications of Seoul Survey	134

• SEOUL at a Glance



서울서베이 지표체계의 변화

2019년 : 26개 영역, 180개 지표

2020년 : 28개 영역, 100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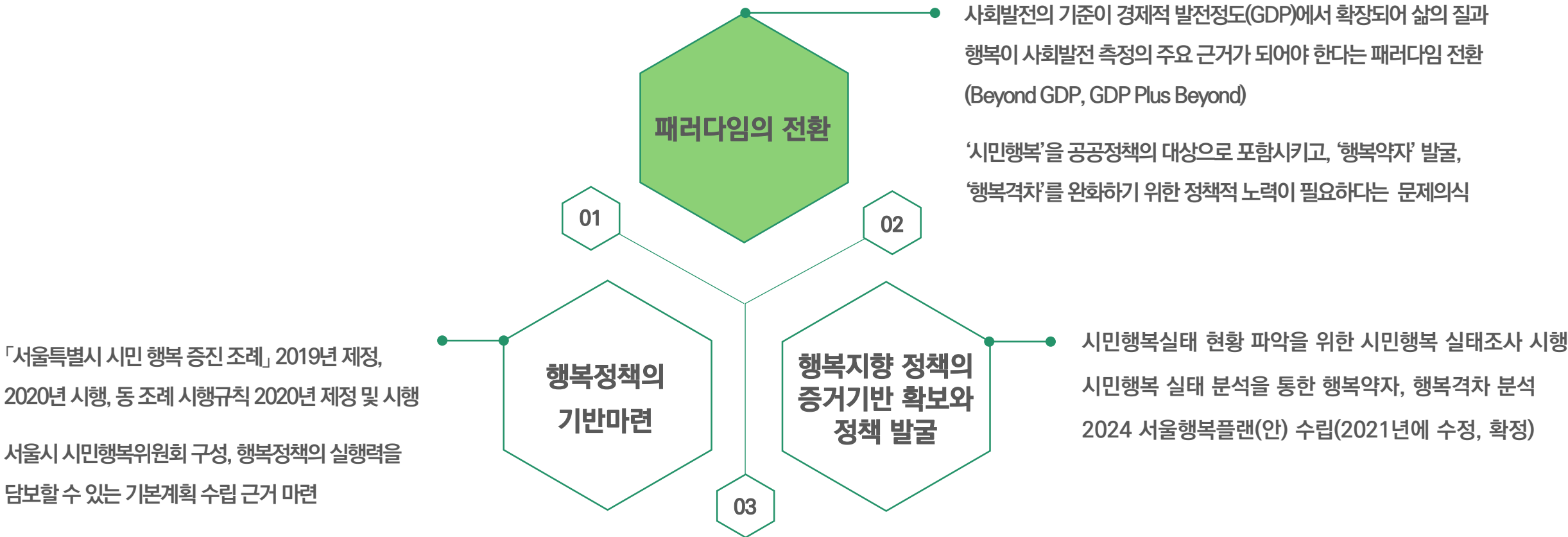
2021년 : 27개 영역, 100개 지표

분야	영역	지표수	분야	영역	지표수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와 가구	• 서울인구 • 서울거주 외국인	25	인구와 가구	• 서울인구 • 서울가구 • 서울거주 외국인	10	인구와 가구	• 서울인구 • 서울가구 • 서울거주 외국인	9
경제와 생활	• 경제활력 • 소득과 고용 • 주거와 생활	21	경제와 노동	• 경제활력 • 소득과 고용	10	경제와 노동	• 경제활력 • 소득과 고용	9
			도시생활과 주거	• 주거와 생활 • 스마트 도시역량 • 스마트 도시격차	10	도시생활과 주거	• 주거와 생활 • 스마트 도시역량 • 스마트 도시격차	11
건강과 보건	• 건강한 삶 • 지역보건	13	건강과 보건	• 건강한 삶 • 지역보건	10	건강과 보건	• 건강한 삶 • 지역보건	10
안전과 재난	• 재난안전 • 교통안전 • 생활안전	18	안전과 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사회안전	10	안전과 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사회안전	10
환경	• 대기와 녹지 • 물환경과 폐기물 • 에너지	12	환경	• 대기와 녹지 • 물 순환과 자원순환 • 에너지	10	환경	• 대기와 녹지 • 물 순환과 자원순환 • 에너지	11
교통	• 대중교통환경 • 녹색교통환경	18	교통	• 교통 인프라 • 교통 서비스 • 지속가능한 교통	10	교통	• 교통 인프라 • 교통 서비스	11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향유 • 문화기반 • 문화시장	16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향유 • 문화기반 • 문화시장	10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향유 • 문화기반 • 문화시장	10
거버넌스	• 시민참여 • 정보행정과 활용	8						
복지와 돌봄	• 교육 및 보육 환경 • 사회적 약자보호 • 성평등성	29	교육과 돌봄	• 교육 및 보육 환경 • 사회적 약자보호 • 성평등성	10	교육과 돌봄	• 교육 및 보육 환경 • 사회적 약자보호 • 성평등성	9
가치와 의식	• 가족과 공동체 • 포용성 • 정체성	20	가치와 의식	• 시민성 • 포용성 • 가족과 공동체	10	가치와 의식	• 시민성 • 포용성 • 가족과 공동체	10

02

서울행복지표체계

서울시민 행복기본계획 수립과 행복지표체계 구축 ('19~'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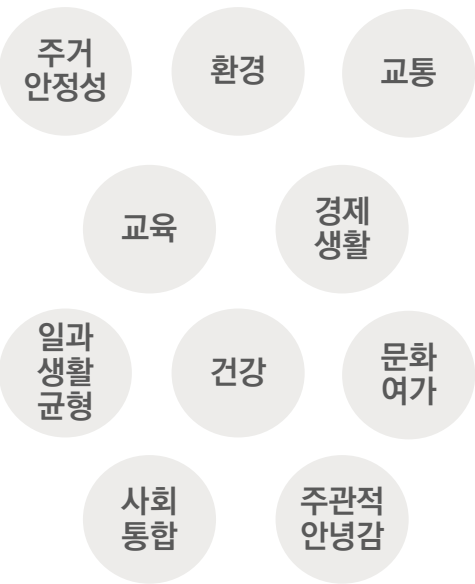


2024 서울행복플랜(서울시민 행복기본계획)의 구성

2024 서울행복플랜

서울행복지표(SHI) 체계

10개 영역, 61개 지표



-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개발
- 지표의 측정 가능성 검토
- 민선8기 사회변화를 반영한 추가 조사

지표 데이터 구축

행정자료 조사

- 서울시 실국별 행정자료, 외부 통계 등

시민행복 실태조사

- 서울행복지표에 기반한 조사 설계
- 서울시민 7,000 표본, 온라인 조사

집단심층면접조사(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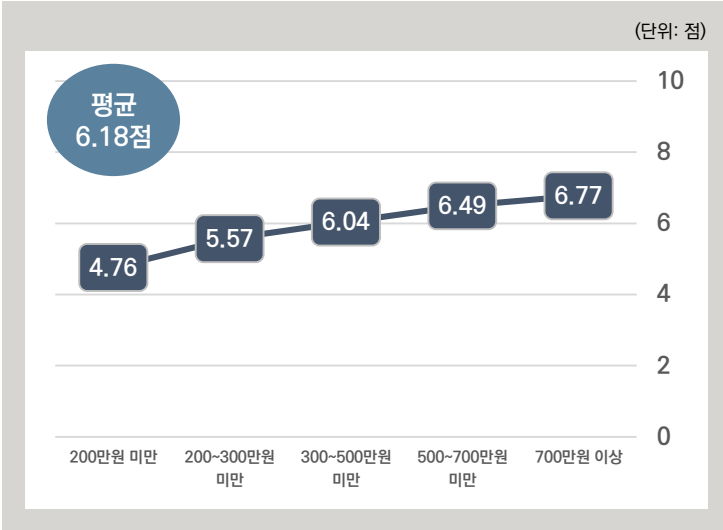
- 서울시 행복 취약집단 심층면접 실시

- 행정 데이터의 가용성 분석
- 지표 현황 상세 분석
- 시계열성에 대한 검토

실태분석 및 전략과제 확정

서울시민의 주관적 행복감

(2021년 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6,700명)



- 시민 행복 실태 파악
- 행복약자와 행복격차 분석
- 행복약자 지원과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서울행복지표(SHI) 10개 영역 61개 지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로 구성

구분

시민행복실태조사(38개 지표)

행정자료(23개 지표)

영역	지표					지표수
1. 주거안정성	1.1.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1.2.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1.3. 비정상적 거처 거주가구 비율			3
2. 환경	2.1. 1인당 공원면적	2.2. 생활환경 만족도	2.3. 10분 동네 생활편의시설 수	2.4. 기후변화 불안도	2.5. 미세먼지·황사 없는 날 수	8
	2.6. 온실가스 배출량	2.7. 생활안전도	2.8. 야간보행 안전도			
3. 교통	3.1. 지하철 혼잡도	3.2. 교통체증 체감률	3.3.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3.4. 자전거 도로율	3.5. 보행환경 만족도	6
	3.6. 통근·통학시간					
4. 교육	4.1. 국공립 어린이집 수	4.2. 세대간 교육이동성	4.3. 교육환경 만족도	4.4. 평생학습 참여율	4.5. 교육기회 충족도	5
5. 경제생활	5.1. 1인당 개인소득	5.2. 소득만족도	5.3.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5.4. 소비생활 만족도	5.5. 총자산액	6
	5.6. 부채율					
6. 일과 생활 균형	6.1. 고용률	6.2. 고용의 질	6.3. 유연근무 도입률	6.4. 가사·돌봄분담률(아동노인돌봄포함)	6.5.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6
	6.6.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					
7. 건강	7.1. 건강검진율	7.2. 걷기실천율	7.3. 건강 삶의 질 지수	7.4. 주관적 건강만족도	7.5. 자살률	8
	7.6. 스트레스 인지율	7.7. 고독사 수	7.8. 외로움			
8. 문화여가	8.1. 도서관 수	8.2. 생활문화공간 수	8.3. 문화활동참여횟수	8.4. 문화환경 만족도	8.5. 연간 여행횟수	6
	8.6. 여가시간 충분성					
9. 사회통합	9.1. 공적 의사결정 참여경험	9.2. 지역자부심	9.3. 투표율	9.4. 자원봉사 참여율	9.5. 기부율	9
	9.6. 사회적 지지	9.7. 이웃신뢰	9.8. 공정성 인식도	9.9. 포용성 인식도		
10. 주관적 안녕감	10.1. 삶의 만족도	10.2. 삶의 선택의 자율성	10.3. 긍정적 감정(긍정정서)	10.4. 부정적 감정(부정정서)		4

서울시민 행복실태조사의 설계

3 조사표 구성

표본선정 질문	행복한 시민 영역 질문	행복한 도시 영역 질문	함께 행복한 사회 영역 질문
- 성별 - 거주지역(구) - 출생년도	- 주관적 건강 만족도 - 스트레스 인지율 - 반려동물 -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 지역사회 정서적 친밀감 정도 - 연간 여행 횟수 -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 평상학습 참여율 - 걷기 실천율 - 외로움 - 가사·돌봄 부담률 - 하루에 접촉하는 사람 수 - 문화활동 참여횟수 - 여가시간 충분성 - 교육기회 충족도	- 기후변화 불안도 - 보행환경 만족도 - 통근·통학시간 - 생활안전도 -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 교통체증 체감률 - 대중교통 혼잡도	- 자원봉사 참여율 - 공적의사결정 참여경험 - 사회적지지 - 이웃과의 갈등정도 - 차별경험 여부 및 종류 - 시민성 - 생활환경 만족도 - 긍정/부정적 감정 - 코로나19 감염 - 안전/우울 /소득변화/동네 안전 인식 - 기부율 - 지역자부심 - 이웃신뢰 - 공정성 인식도 - 포용성 인식도 - 삶의 만족도 - 교육환경 만족도 - 삶의 선택 자율성 - 노후 불안감 - 나의 세대 대비 다른 세대 행복
인구사회적 특성 질문			
- 혼인상태 - 고용상태 - 종교 - 가구소득 - 부채율 - 직업 - 실업 불안감 - 학력 - 세대간 교육이동성 - 가구원 수 - 경제상황 안정도 - 주택 유형 - 주거 점유형태 - 이념성향			

주) 자세한 사항은 부록, 지표별 조사표 참고

2. 서울시민의 삶의 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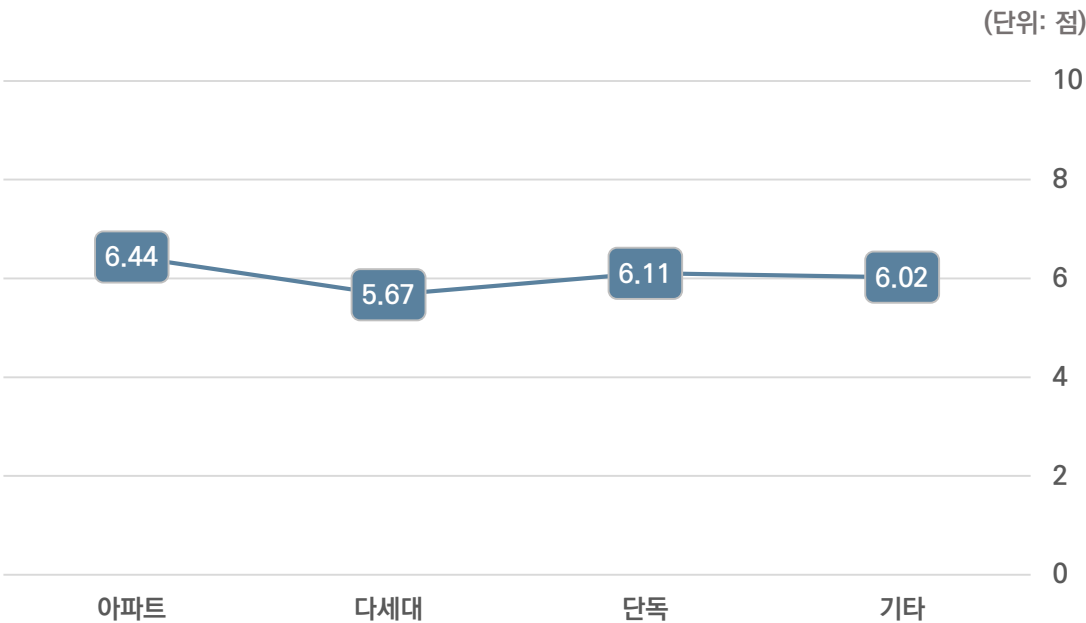
01

주거안정성

아파트 거주자, 자기소유자 일수록 행복도가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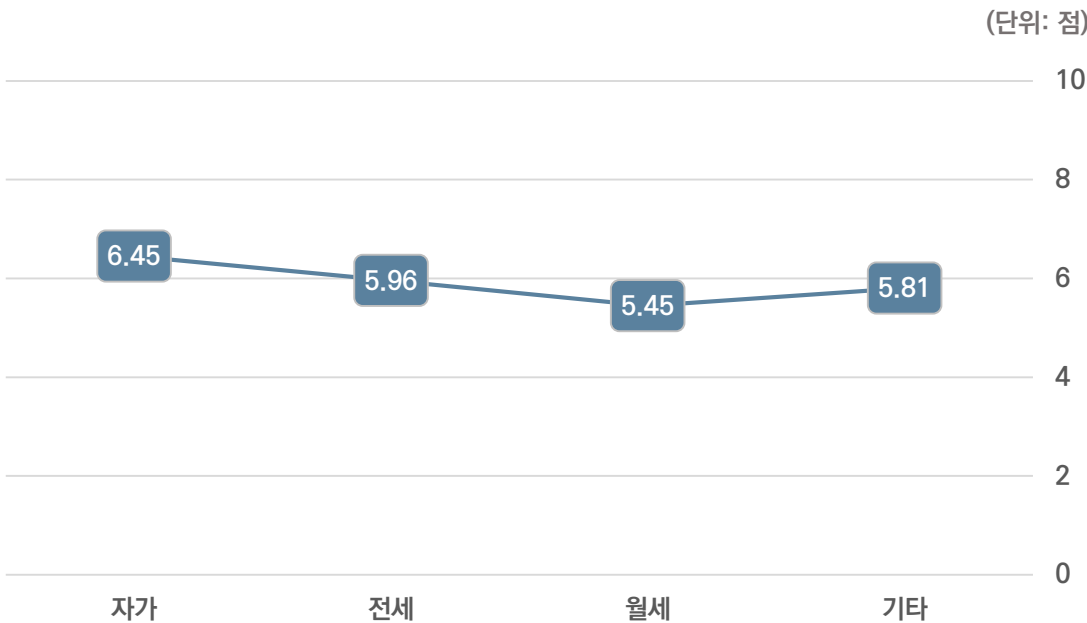
- 아파트 거주자의 행복감은 6.44점으로 단독 6.11점이나 다세대 5.6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 주택의 자기소유자의 행복감은 6.45점으로 전세 5.96점, 월세 5.45점에 비해 높아

주택유형별 행복감 평균



주) 10점 척도

점유형태별 행복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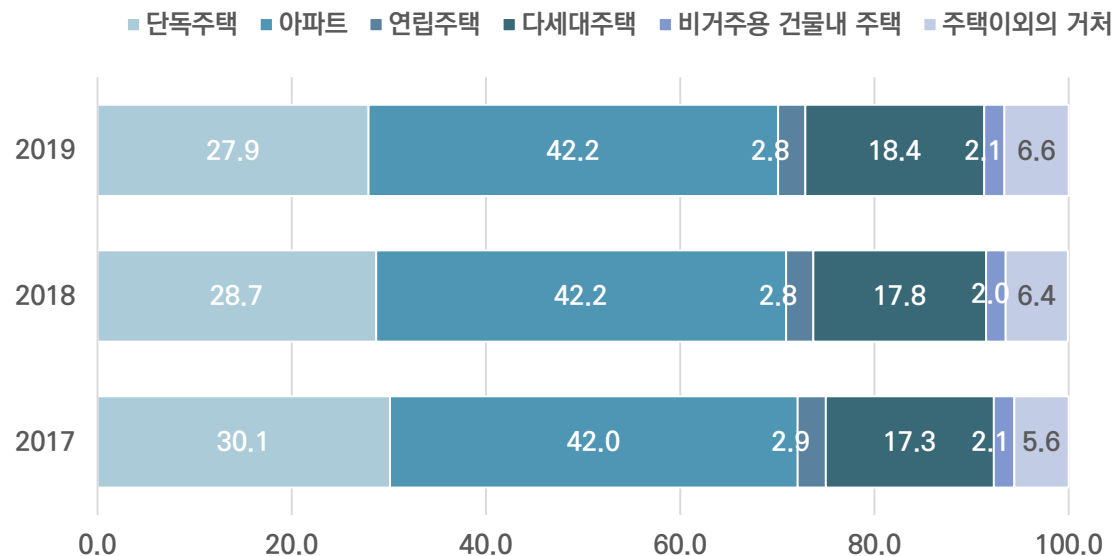
주) 10점 척도

비정상적 거처 거주 가구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여

- 서울 내 주택이외의 거처 비율은 2017년 5.6%, 2018년 6.4%, 2019년 6.6%로 증가

서울시 주거실태 현황(2017~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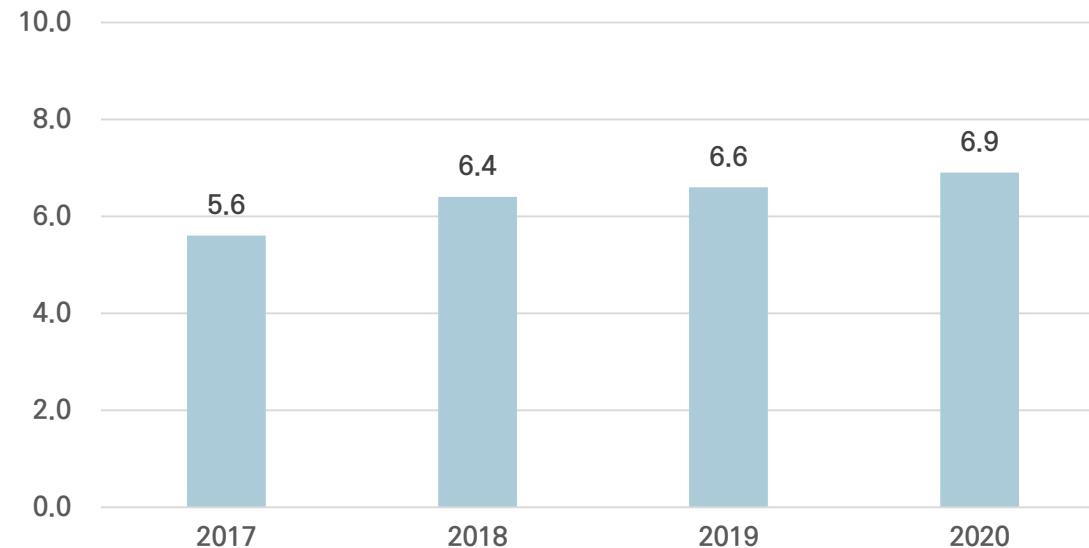
(단위: %)



원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시 주거실태현황(주택유형, 점유형태 등) 통계
 (<http://data.seoul.go.kr/dataList/10762/S/2/datasetView.do#>)

비정상적 거처 거주 가구 비율

(단위: %)



주) 주택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
 자료: 국토교통부(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11쪽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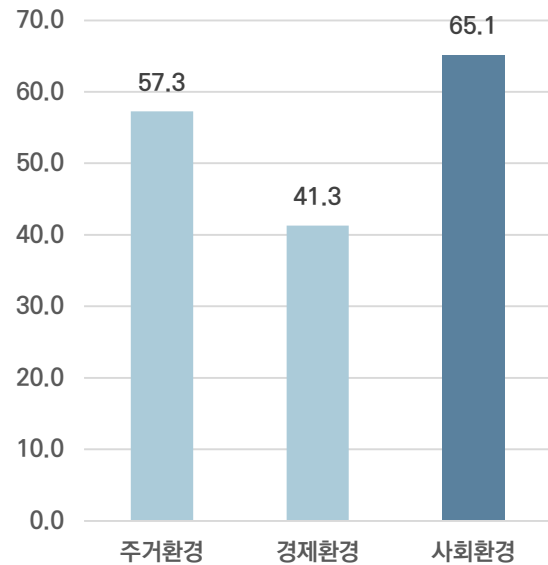
환경

사회환경 만족도는 65.1%, 주거환경 57.3%, 경제 41.3% 만족도 나타내

-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 동남권은 주거, 경제, 사회환경 모두 전체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

생활환경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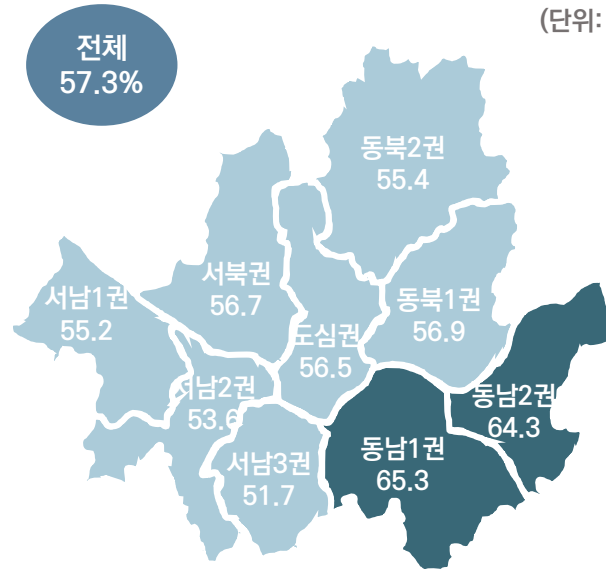
(단위: %)



주)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의 비율

생활환경만족도 :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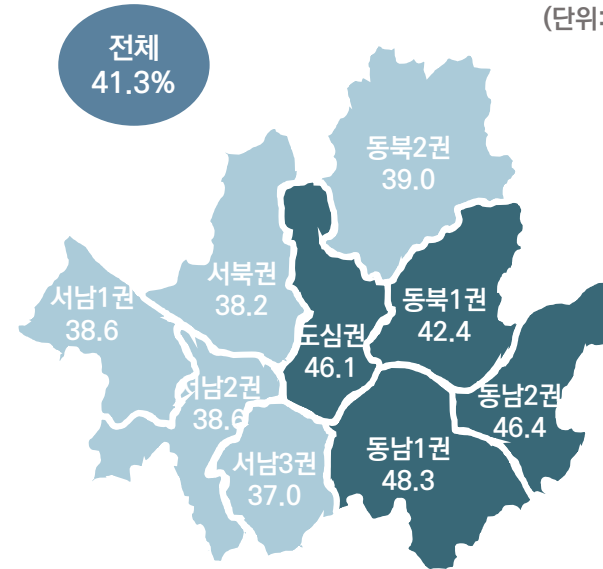
(단위: %)



주: 1)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의 비율
2) 주거환경 : 주택, 교통, 녹지 등

생활환경만족도 : 경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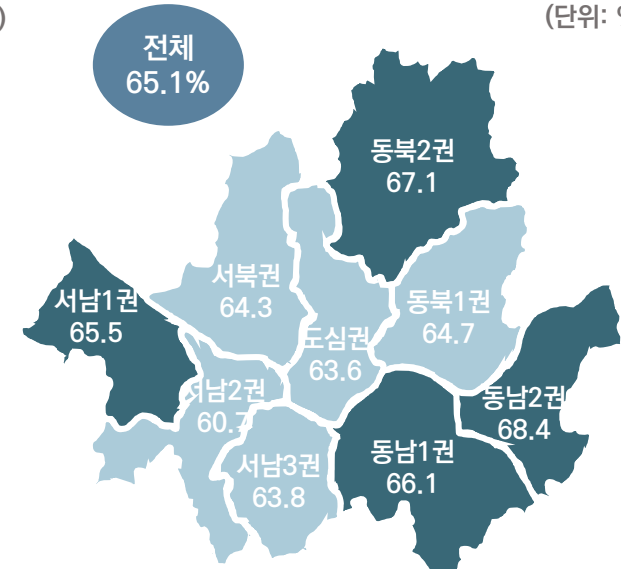
(단위: %)



주: 1)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의 비율
2) 경제환경 :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생활환경만족도 : 사회환경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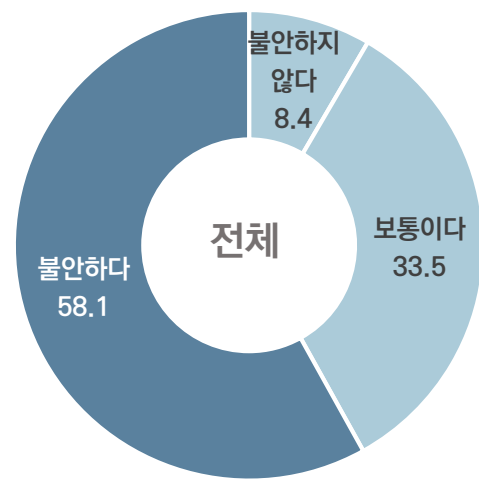
주: 1)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의 비율
2) 사회환경 : 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시민 10명중 5~6명은 기후변화에 대해 불안해하며 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 서울시민 58.1%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 정도는 30대 이하 청년층보다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10%이상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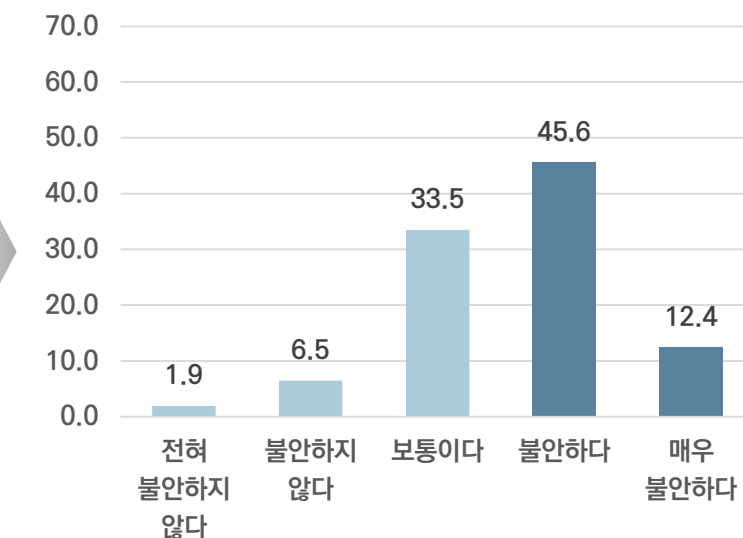
기후변화불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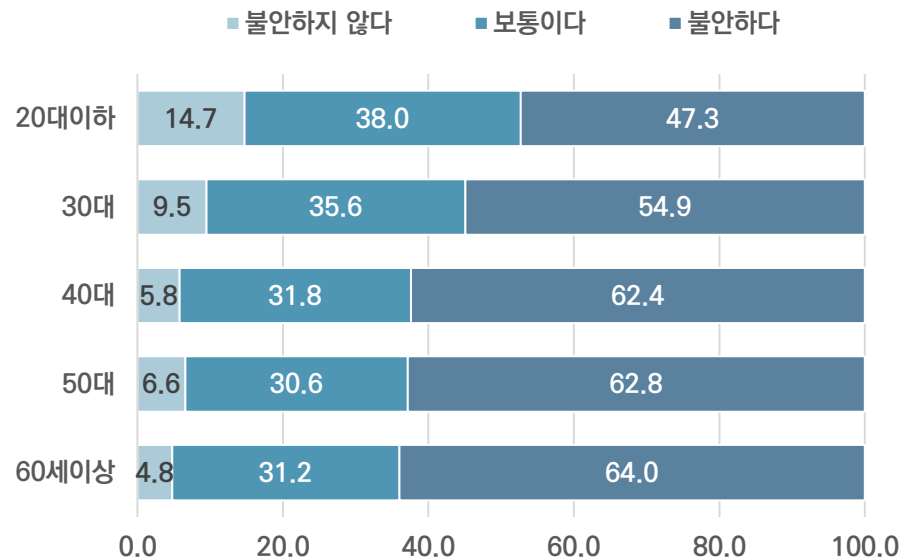
주) 불안하지 않다(불안하지 않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

(단위: %)



연령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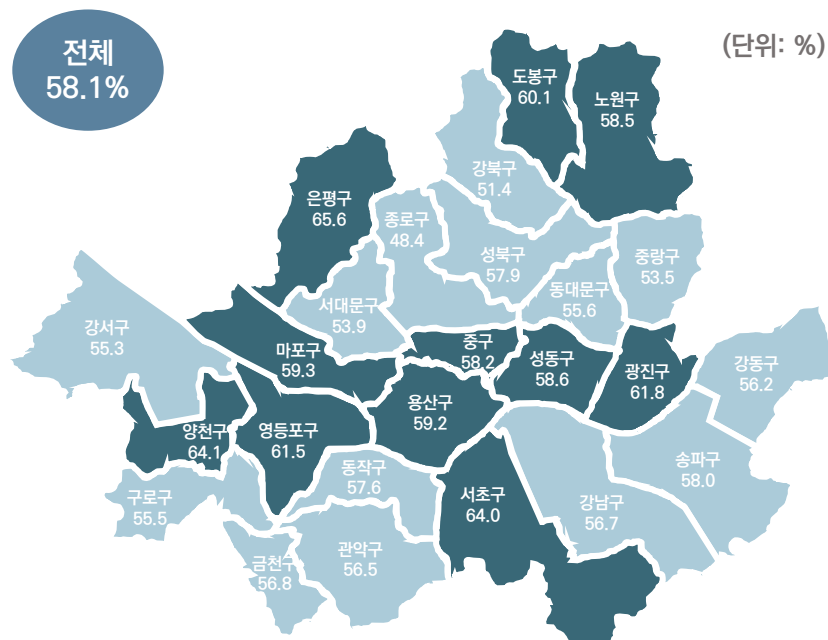


주) 불안하지 않다(불안하지 않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

고연령층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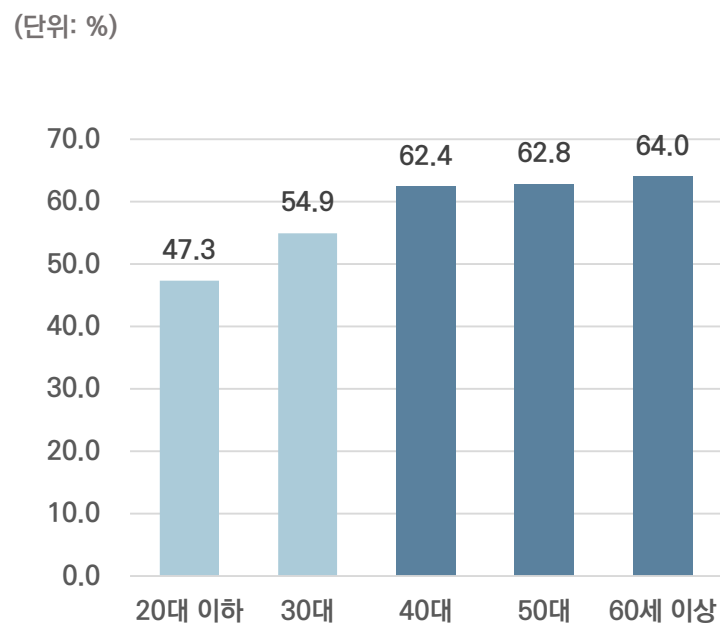
-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은평구(65.6%), 양천구(64.1%), 서초구(64.0%) 순
-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5개 자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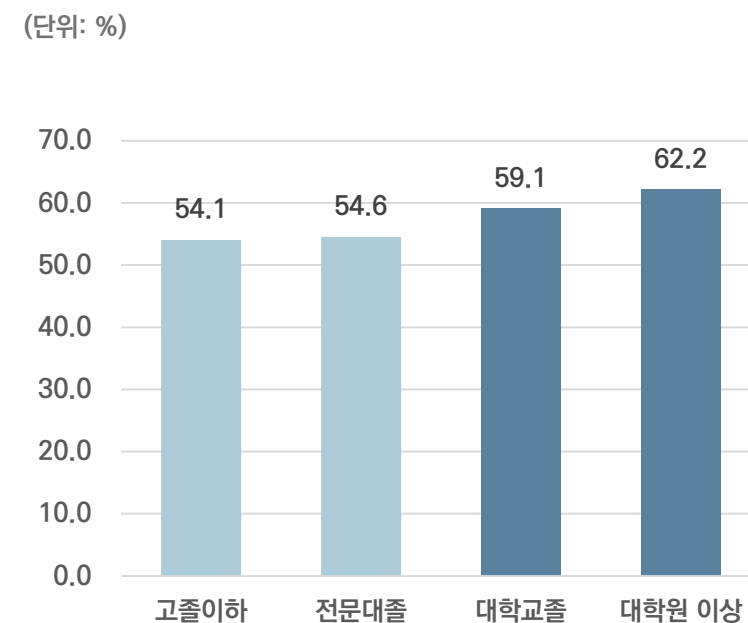
주) 불안하다(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의 비율

연령별



주) 불안하다(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의 비율

학력별



주) 불안하다(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의 비율

야간보행과 범죄폭력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은 유사하게 묶여

• 서울안전지도 (Seoul Safet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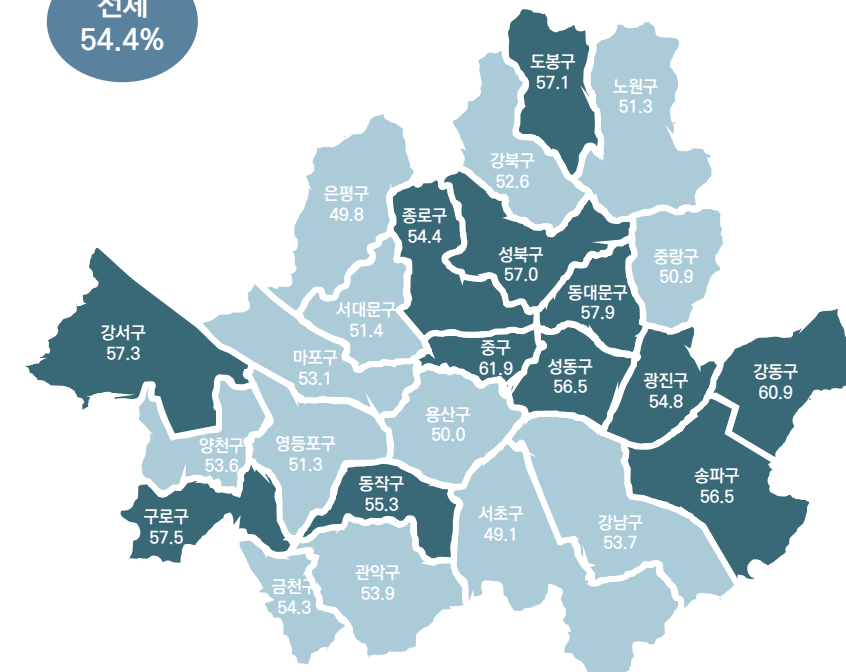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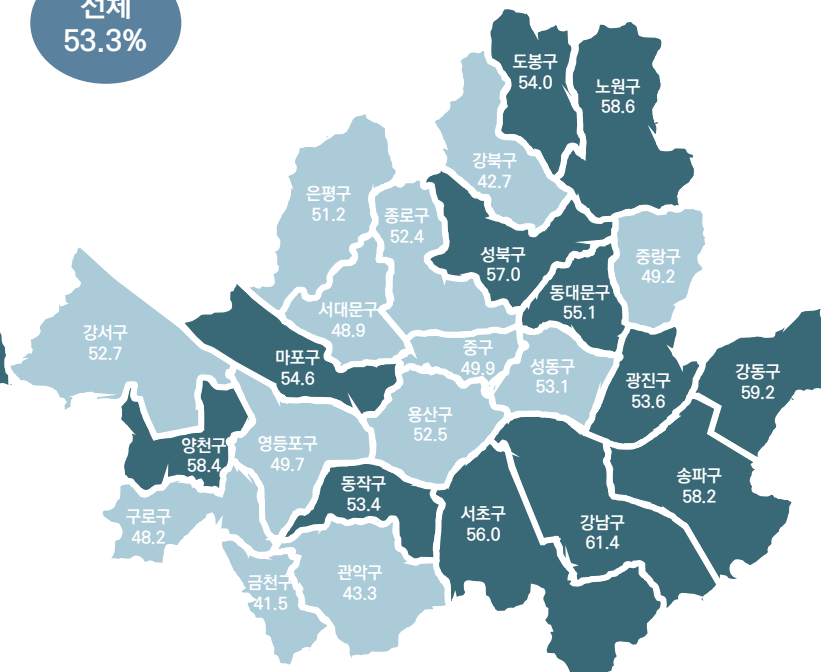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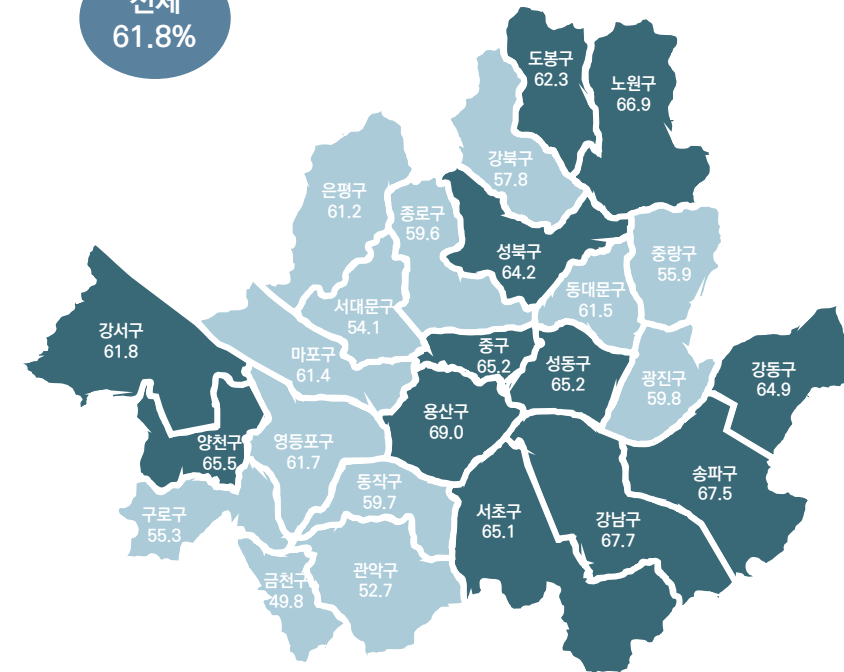
(단위: %)

안전하다(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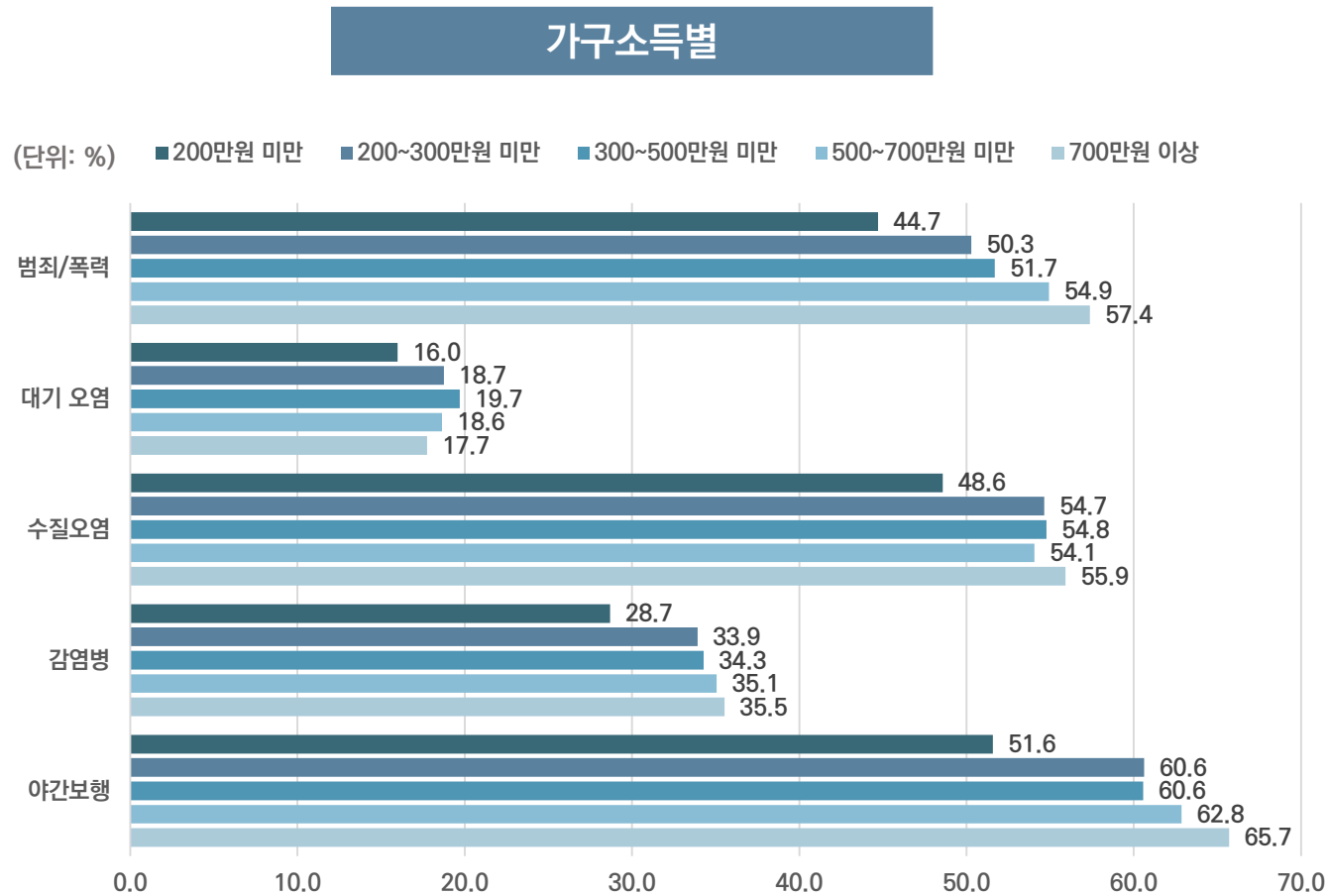
생활안전도 : 야간보행

생활안전도 : 범죄폭력

생활안전도 : 수질오염

전체
61.8%전체
53.3%전체
54.4%

저소득계층일수록 생활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주) 안전하다(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의 비율

(단위: %)		범죄/폭력	대기 오염	수질오염	감염병	야간보행
전체		53.3	18.5	54.4	34.3	61.8
성별	여자	47.5	16.9	52.2	31.6	53.2
	남자	59.2	20.2	56.7	37.1	70.7
연령별	20대이하	51.0	24.2	58.9	35.3	58.8
	30대	50.1	19.8	52.4	33.7	57.5
	40대	51.7	14.7	51.0	33.8	62.2
	50대	57.4	14.9	54.6	35.3	66.6
	60세이상	56.5	18.9	55.2	33.2	64.1
지역별	도심권	51.8	24.3	54.2	38.2	65.3
	동북1권	52.6	20.1	54.8	36.3	60.2
	동북2권	54.1	20.4	54.3	36.7	63.5
	서북권	51.7	17.8	51.3	32.2	59.4
	서남1권	55.1	17.6	55.7	29.3	63.4
	서남2권	47.2	16.8	54.4	35.6	56.4
	서남3권	47.6	16.8	54.5	30.7	55.7
	동남1권	59.0	18.6	51.7	33.0	66.6
	동남2권	58.6	15.8	58.3	36.2	66.4
가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44.7	16.0	48.6	28.7	51.6
	200~300만원 미만	50.3	18.7	54.7	33.9	60.6
	300~500만원 미만	51.7	19.7	54.8	34.3	60.6
	500~700만원 미만	54.9	18.6	54.1	35.1	62.8
	700만원 이상	57.4	17.7	55.9	35.5	65.7
주택 유형별	아파트	55.3	18.7	55.1	34.1	64.0
	다세대	49.9	16.7	53.9	33.5	57.3
	단독	51.7	20.8	52.1	37.7	61.7
	기타	48.9	22.6	52.2	36.2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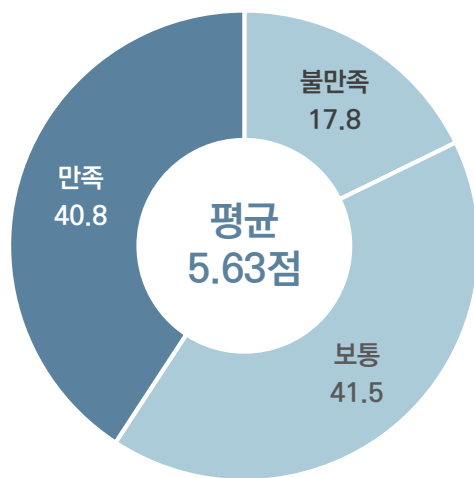
주) 안전하다(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의 비율

서울시민의 도심 야간보행 만족도는 5.63점, 여성, 고령자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 서울 도심(시내)에서 밤늦게 걸어 다니는 야간보행에 대한 만족 정도는 5.63점(10점 평균 환산)으로
-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보통(41.5%), 만족(40.8%), 불만족(17.8%) 순으로 높아
- 60세 이상의 야간보행 만족도는 타 연령층 대비 낮아

야간보행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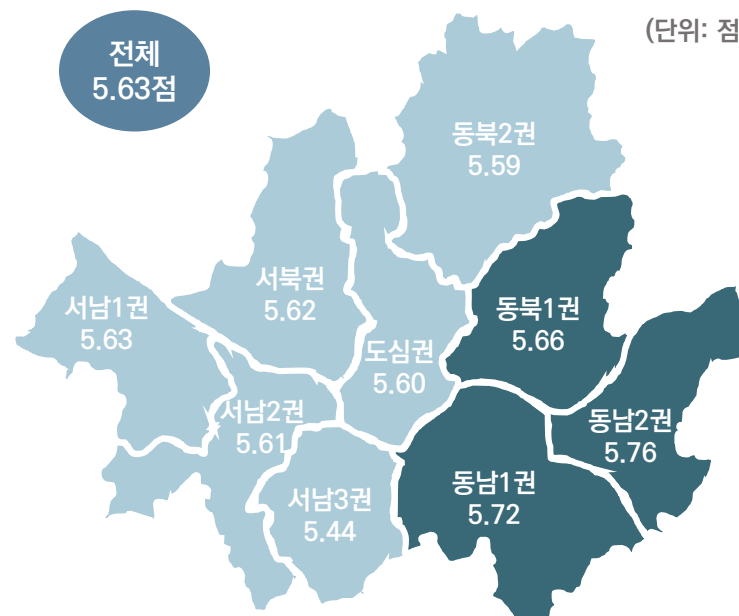
(단위: %, 점)



주: 1) 10점 기준 환산 평균값
2)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 만족(만족+매우 만족)

지역별 만족도 평균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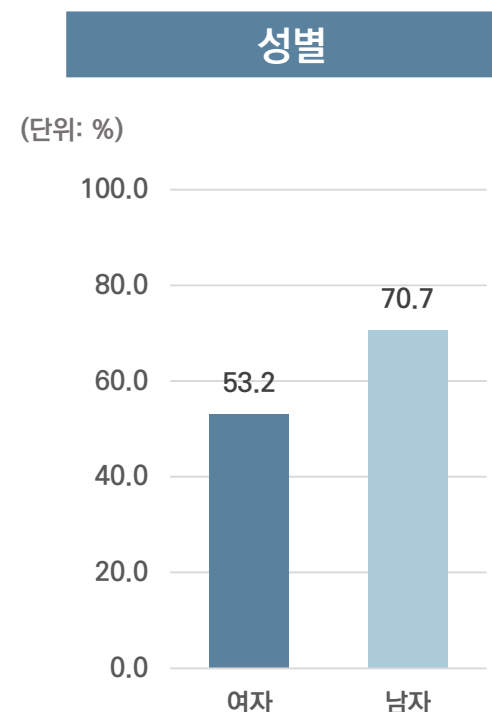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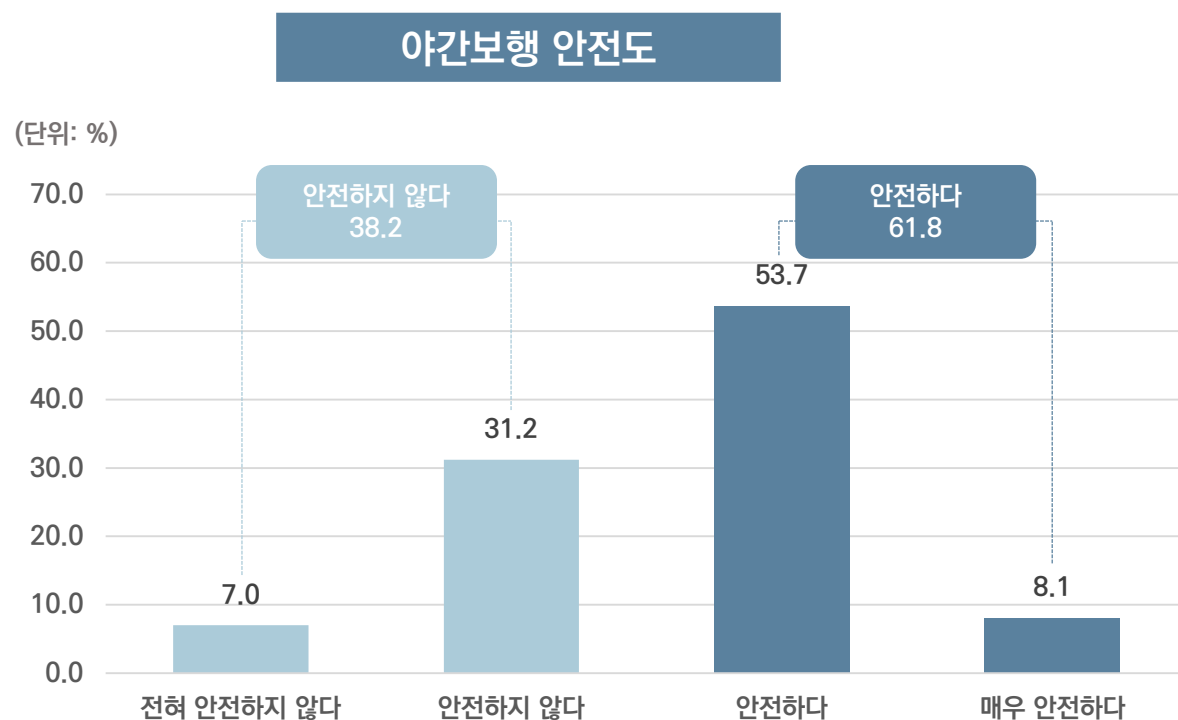
주) 10점 기준 환산 평균값

(단위: 점)		야간보행 만족 정도
전체		5.63
성별	여자	5.38
	남자	5.89
연령별	20대이하	5.77
	30대	5.59
	40대	5.58
	50대	5.72
	60세이상	5.46
	아파트	5.69
주택유형별	다세대	5.55
	단독	5.68
	기타	5.30

주) 10점 기준 환산 평균값

서울시민의 주거지역 야간보행 만족도는 61.8%,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 높아

-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야간보행(혼자 걸을 때)은 전체의 61.8%가 안전하다고 느껴
- 특히, 여성(53.2%)과 남성(70.7%)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주) 안전하다(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의 비율

(단위: %)		야간보행
전체		61.8
연령별	20대이하	58.8
	30대	57.5
	40대	62.2
	50대	66.6
	60세이상	64.1
지역별	도심권	65.3
	동북1권	60.2
	동북2권	63.5
	서북권	59.4
	서남1권	63.4
	서남2권	56.4
	서남3권	55.7
	동남1권	66.6
가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51.6
	200~300만원 미만	60.6
	300~500만원 미만	60.6
	500~700만원 미만	62.8
	700만원 이상	65.7
주택 유형별	아파트	64.0
	다세대	57.3
	단독	61.7
	기타	58.5

주) 안전하다(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의 비율

04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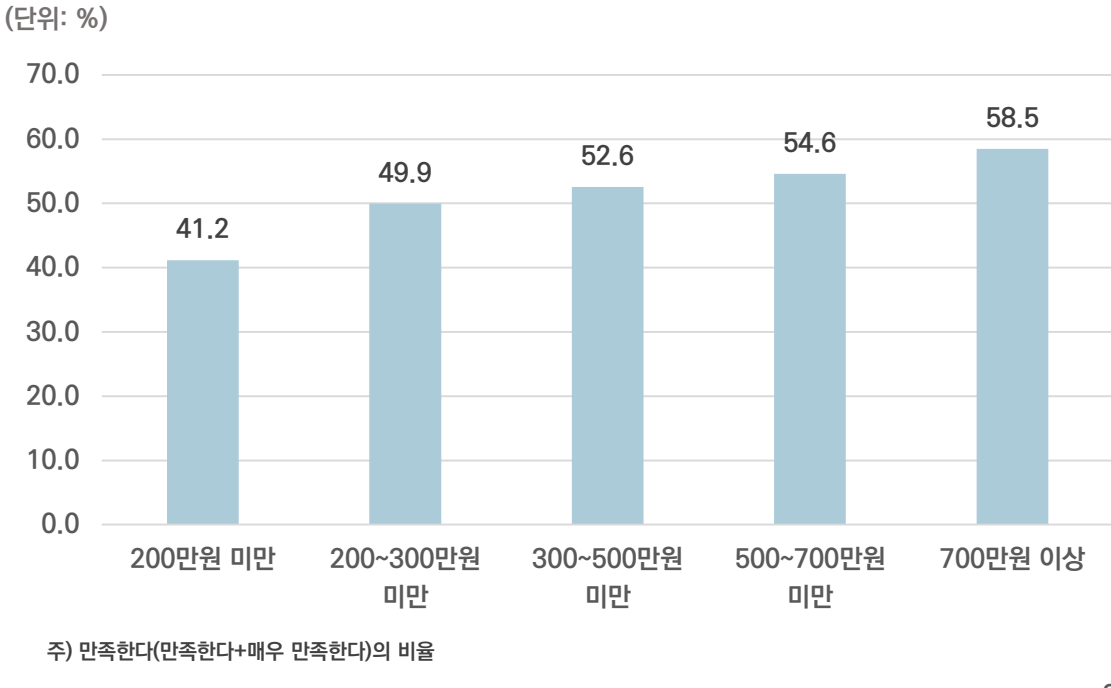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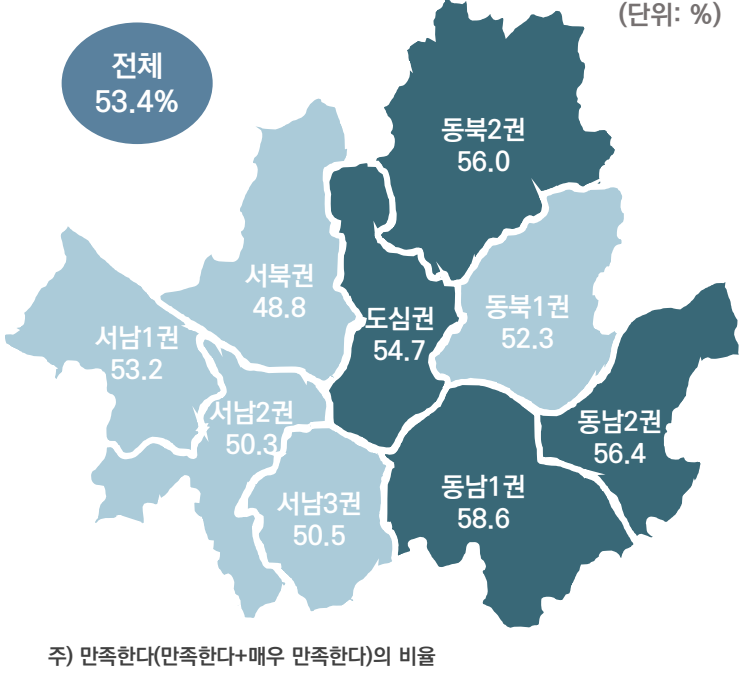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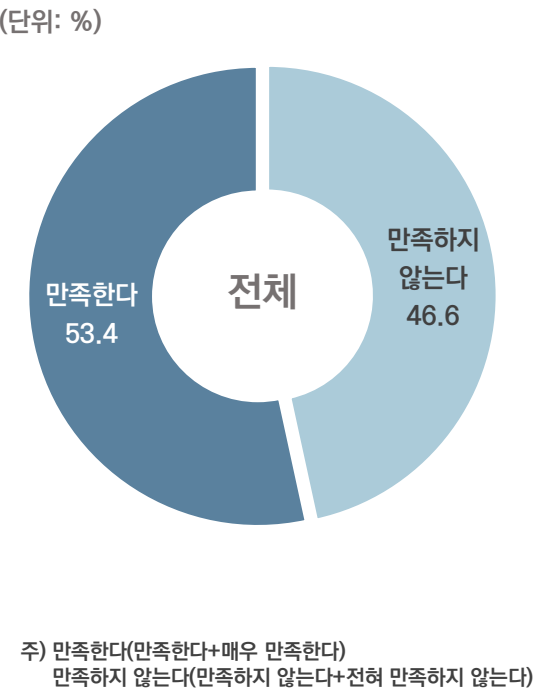
서울시민 과반수 정도만 교육환경에 만족하며, 소득별 교육만족도 차이 크게 나타나

-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에 53.4%가 만족하며,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 지역별로는 동남1권 58.6%, 동남2권 56.4% 순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교육환경 만족도

지역별

가구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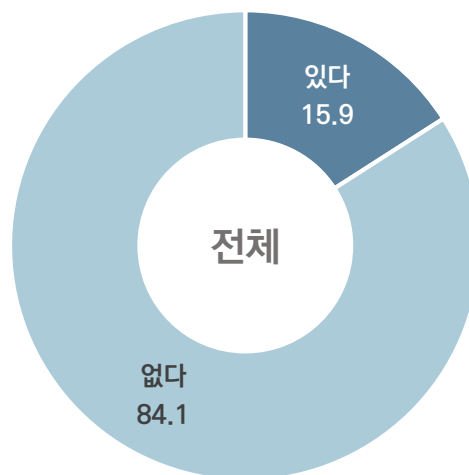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에 비해 평생교육 경험율은 15.9%에 불과해

- 2020년 한해 동안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전체의 15.9%분
- 받아본 평생교육은 직업능력교육, 실용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기초문해 교육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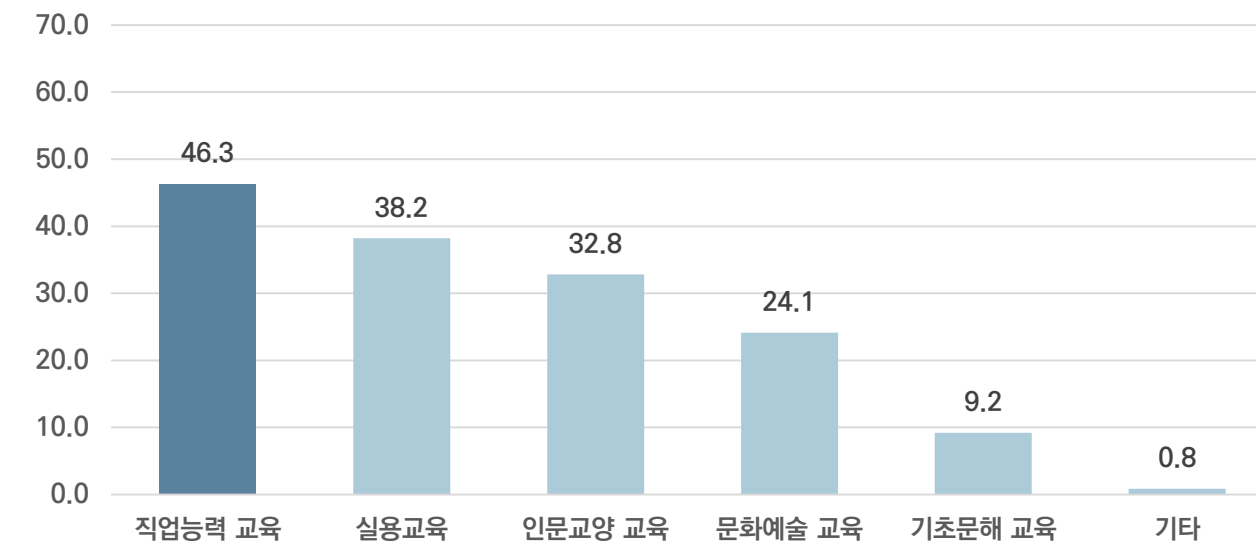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받아본 적 있는 교육

(단위: %)



주: 1)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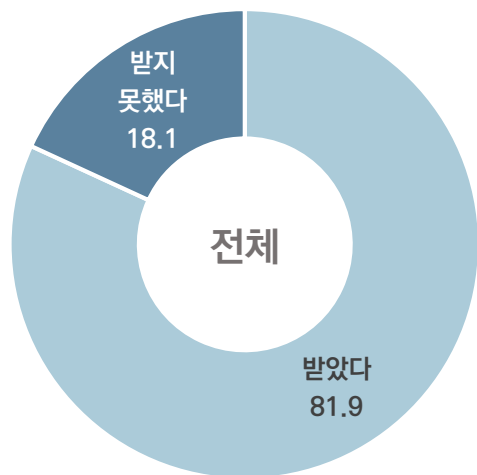
2) 2020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응답 기준

교육기회 충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요인’들로 나타나

-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1.9%로 대부분 충족하고 있어
-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가정형편이 55.8%로 가장 많아*
- *2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의 35.6%는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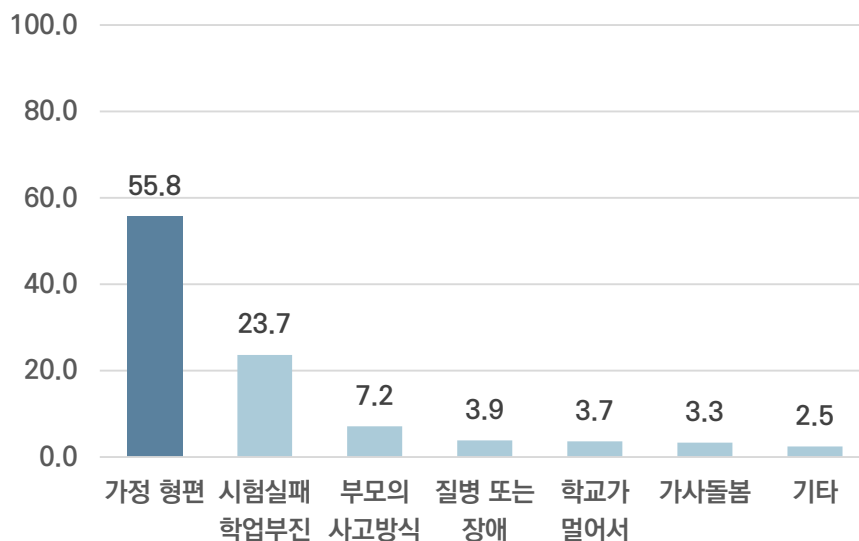
교육기회충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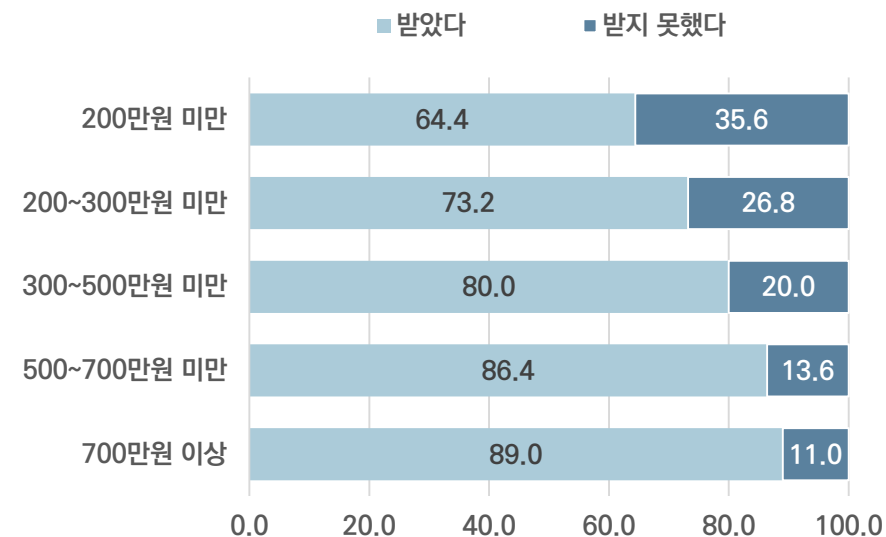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들

(단위: %)



소득수준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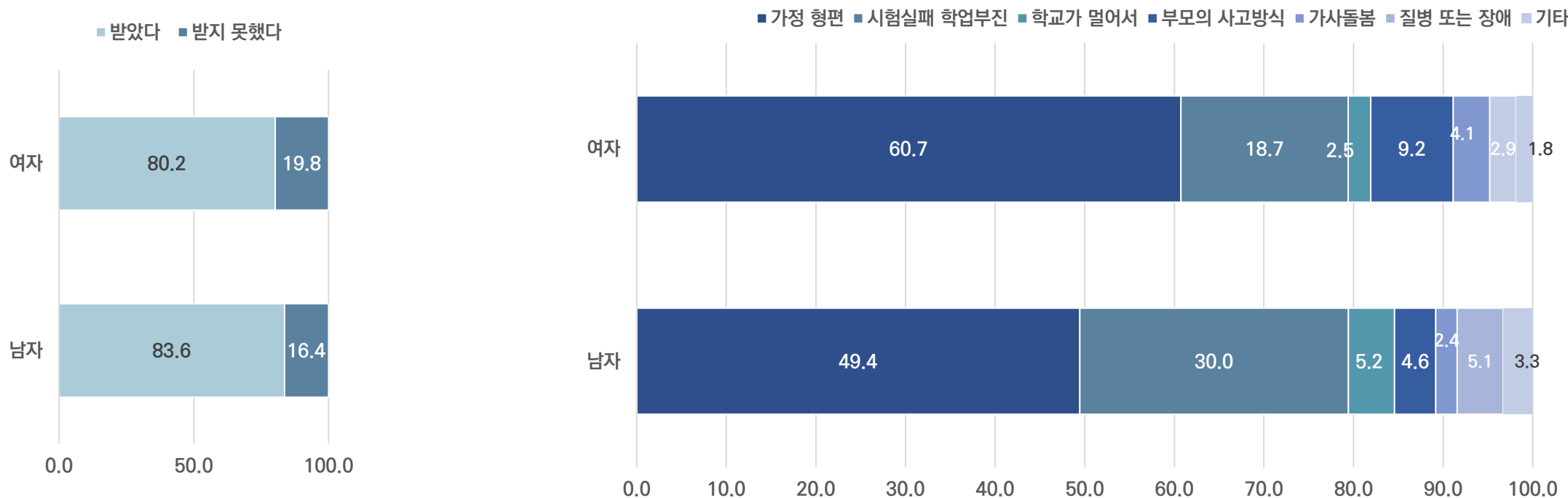


여성들의 교육기회 충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경제적 이유’와 ‘부모의 사고방식’

- 교육기회 충족도에서의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남성보다는 구조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해 (가정형편이나 부모사고방식의 요인)

성별 교육기회 충족율과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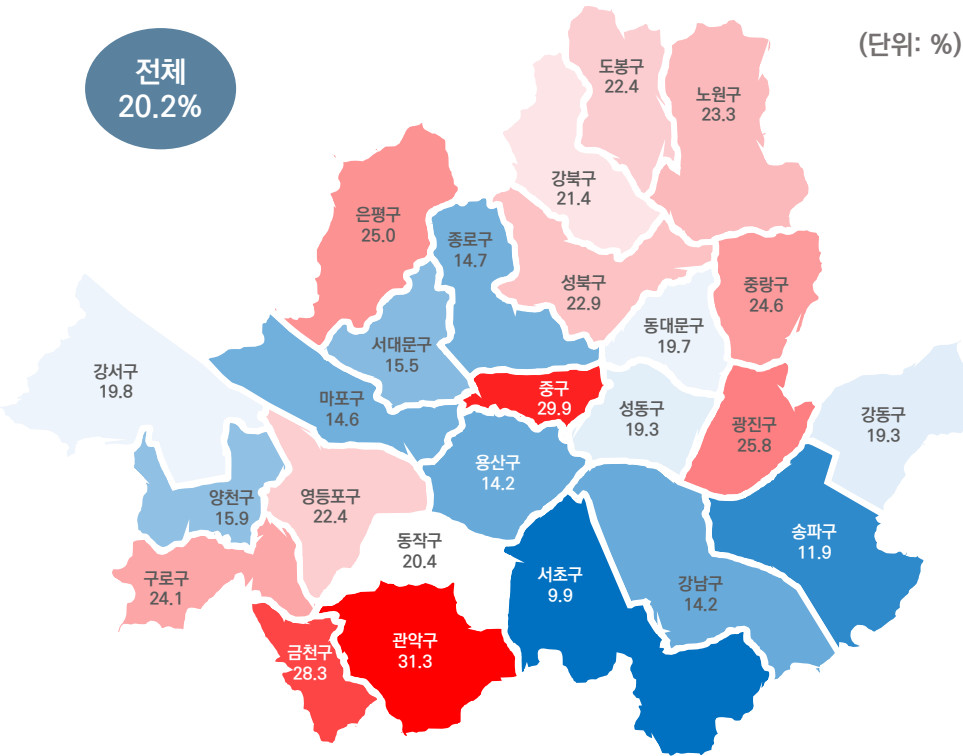
05

경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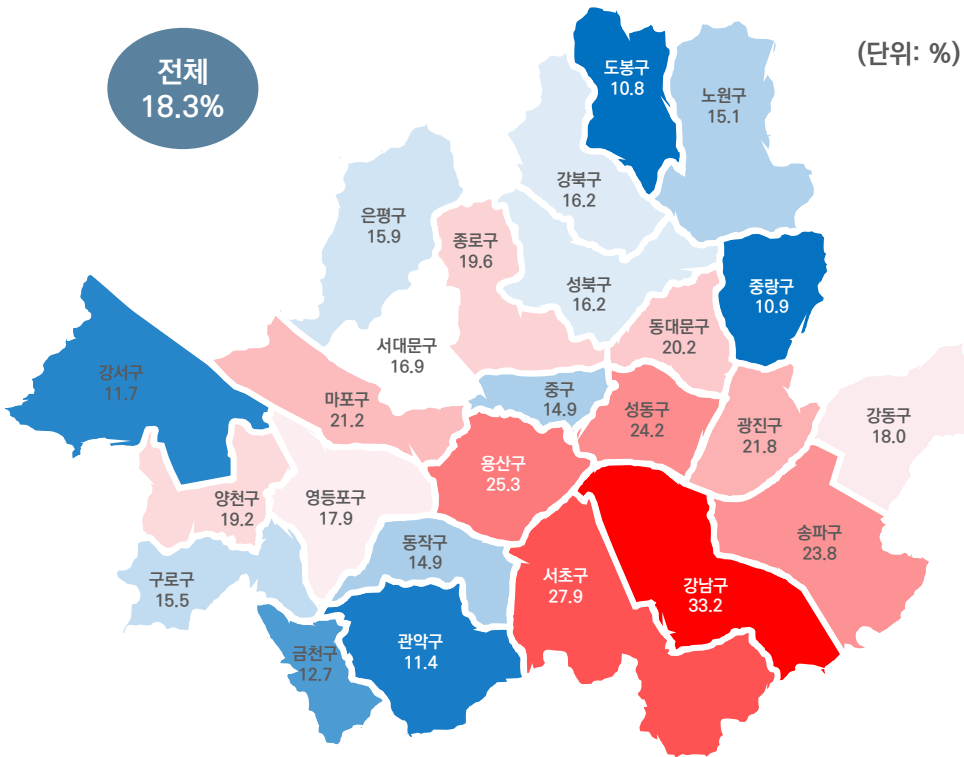
지역별 소득분포의 차이가 크고, 하위20% 소득계층은 관악, 금천, 중구 순으로 多

- 300만원 미만 가구소득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 금천구, 중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순
- 800만원 이상 가구소득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송파구 순
- 강남구는 관악구에 비해 고소득자 비율이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300만원 미만) 비율



고소득 가구(800만원 이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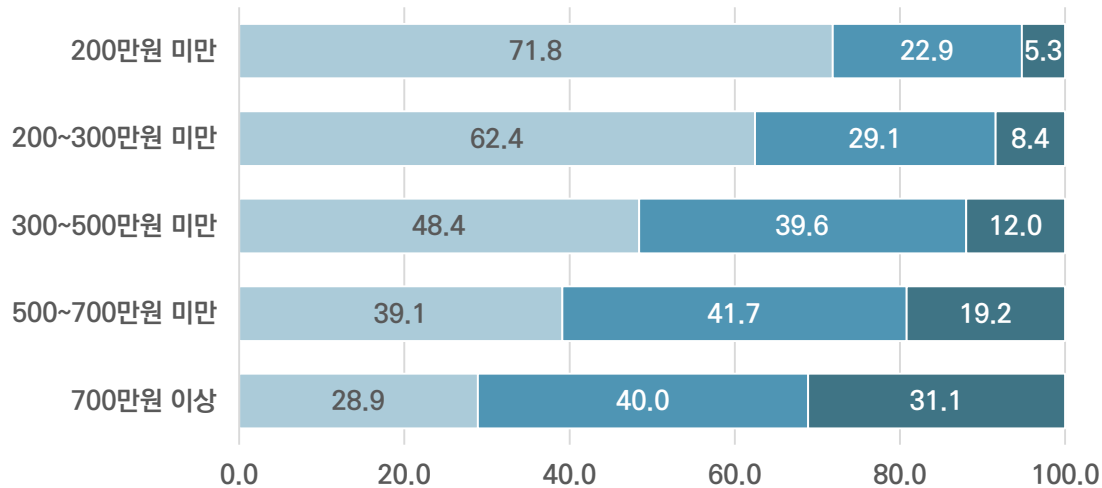
고소득자의 소득만족도는 저소득자에 비해 6배 가량 높게 나타나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만족도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 소득계층별 소득만족도 차이와 행복도 차이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구소득별

(단위: %)

■ 불만족 ■ 보통 ■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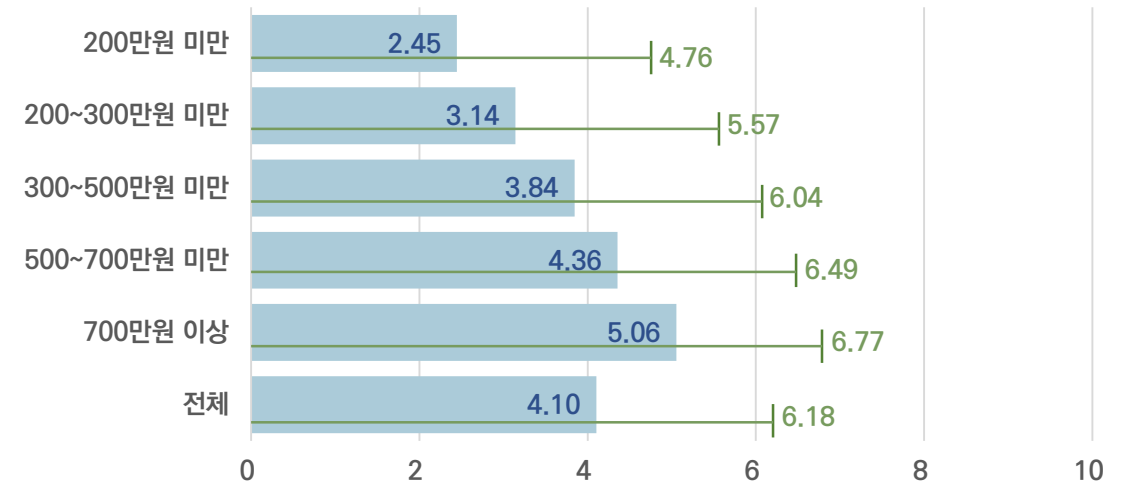


주: 1) 소득 없음 제외
2)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 만족(만족+매우 만족)

가구소득별 소득만족 평균과 주관적 행복감 평균

(단위: 점)

■ 소득만족도 — 현재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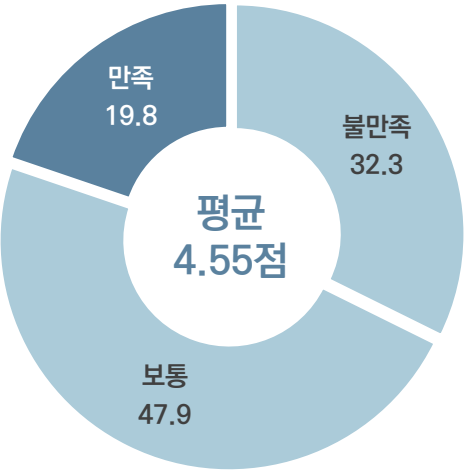
주: 1) 소득 없음 제외
2) 소득만족 평균: 10점 기준 환산 평균값
3) 주관적 행복감: 현재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0~10)

소비생활만족도는 19.8%이나, 20대 이하의 소비생활만족도는 25.0%로 높아

- 전체의 19.8%만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 20대 이하(25.0%)의 소비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40대는 17.4%로 만족도가 가장 낮아
- 지역별로는 동남1권, 도심권, 동남2권 순으로 소비생활만족도가 높아

소비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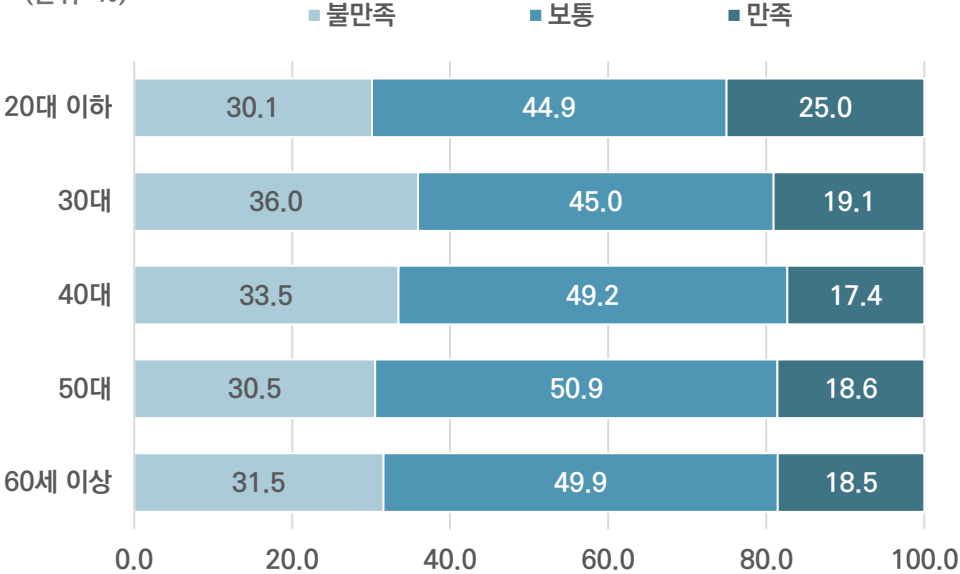
(단위: %, 점)



주: 1)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 만족(만족+매우 만족)
2) 10점 기준 환산 평균값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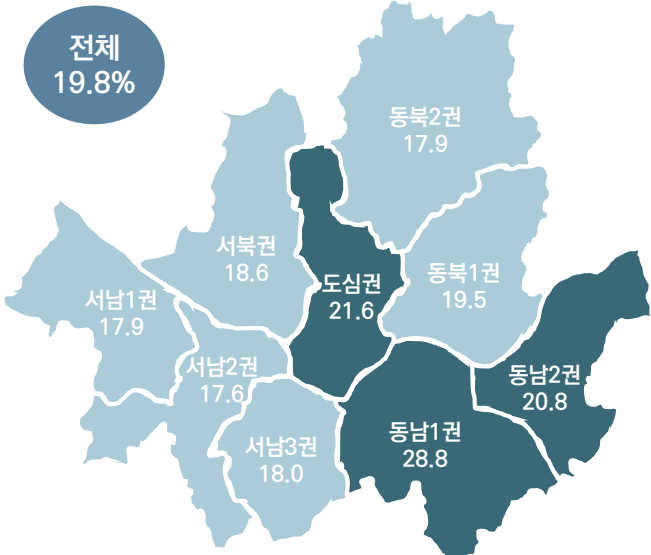
(단위: %)



주)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 만족(만족+매우 만족)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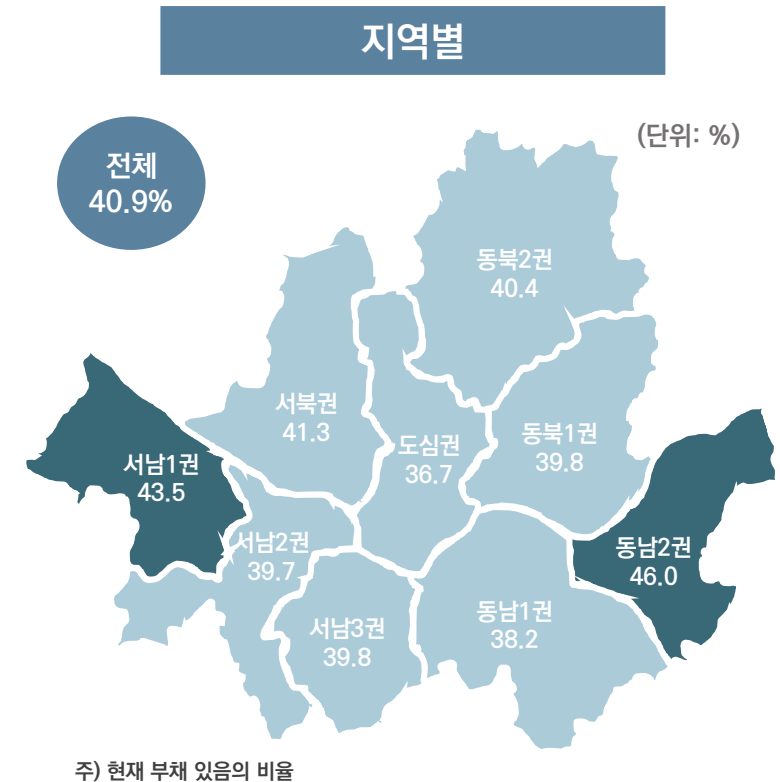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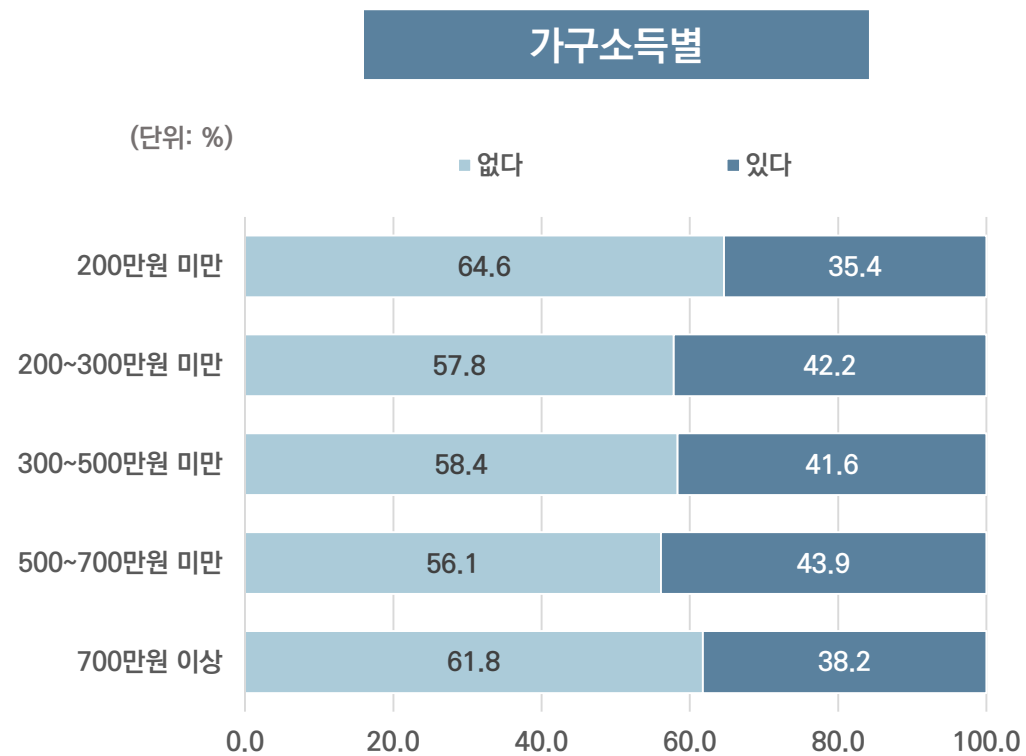
(단위: %)



주) 만족(만족+매우 만족)의 비율

월 평균 가구소득 500~700만원 미만에서 부채율이 높아

- 가구소득별로는 500~700만원 미만 구간이 43.9%로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은 35.4%로 가장 낮아
- 지역별로는 동남2권(46.0%)과 서남1권(43.5%)에서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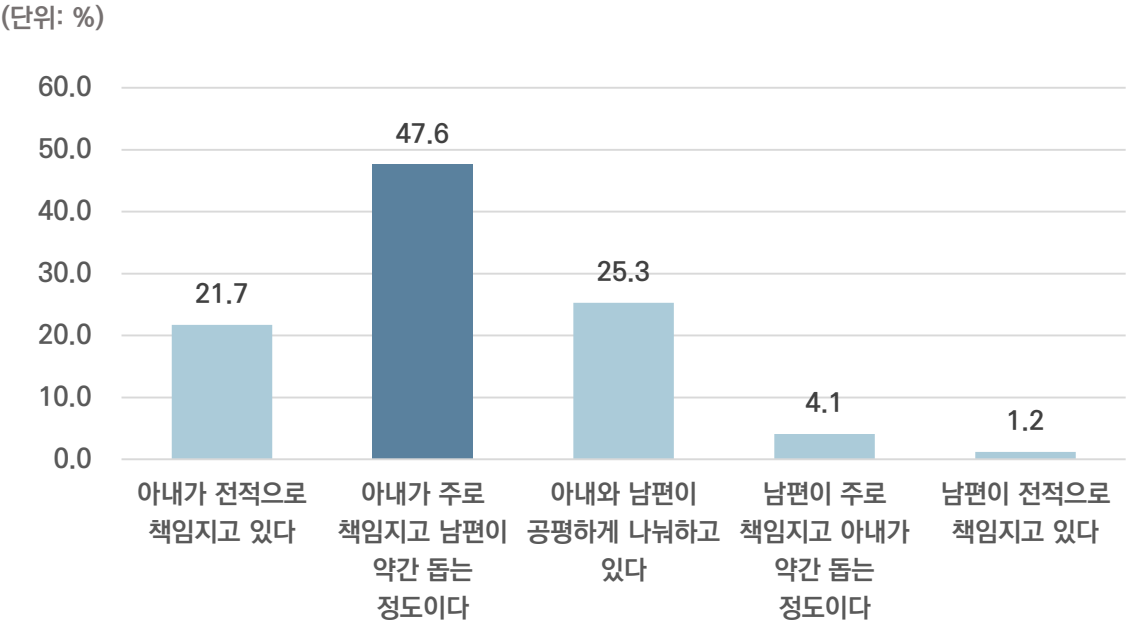
06

일과 생활의 균형

남녀의 역할분담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그러나 세대간 큰 차이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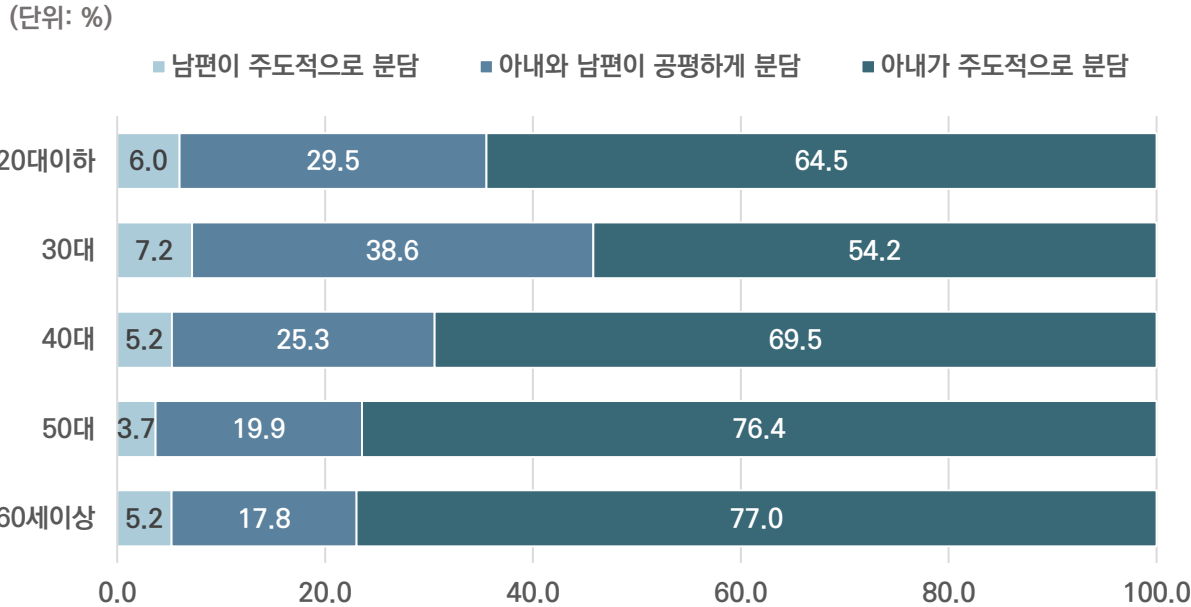
- 가정 내 가사·돌봄의 역할 분담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가 47.6%로 가장 많아
- 60세 이상에서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분담(77.0%)하지만 30대의 경우 그 비율이 54.2%로 세대간 차이 보여
- 남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공평한 집단은 30대로 38.6%가 공평분담 한다고 응답해

가사·돌봄 분담률



주) 비해당(1인 가구, 미혼가구, 한부모 가구 등) 제외

연령별



주: 1) 비해당(1인 가구, 미혼가구, 한부모 가구 등) 제외
 2) 남편이 주도적으로 분담(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아내가 주도적으로 분담(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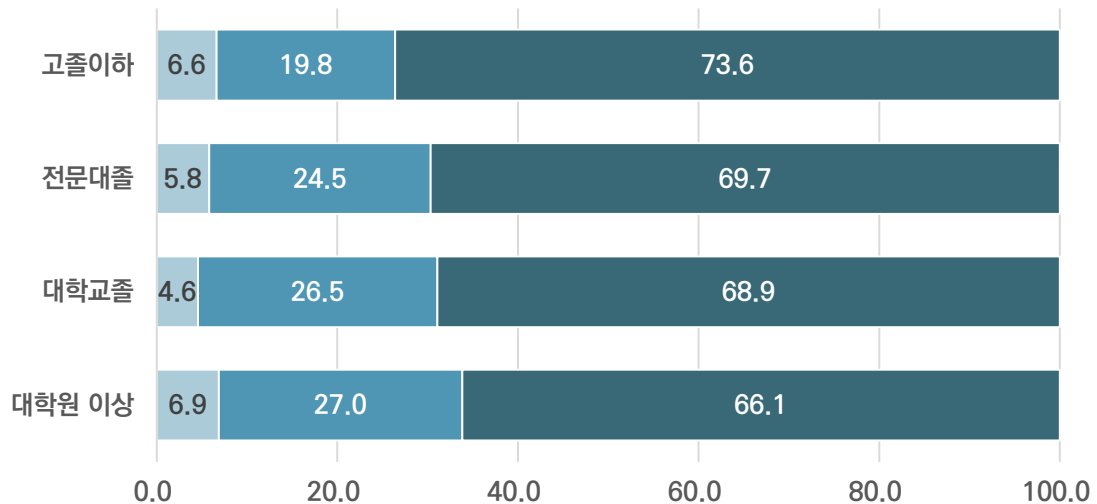
남녀의 역할 분담은 학력이나 소득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높아져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높아져

학력별

(단위: %)

■ 남편이 주도적으로 분담 ■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 ■ 아내가 주도적으로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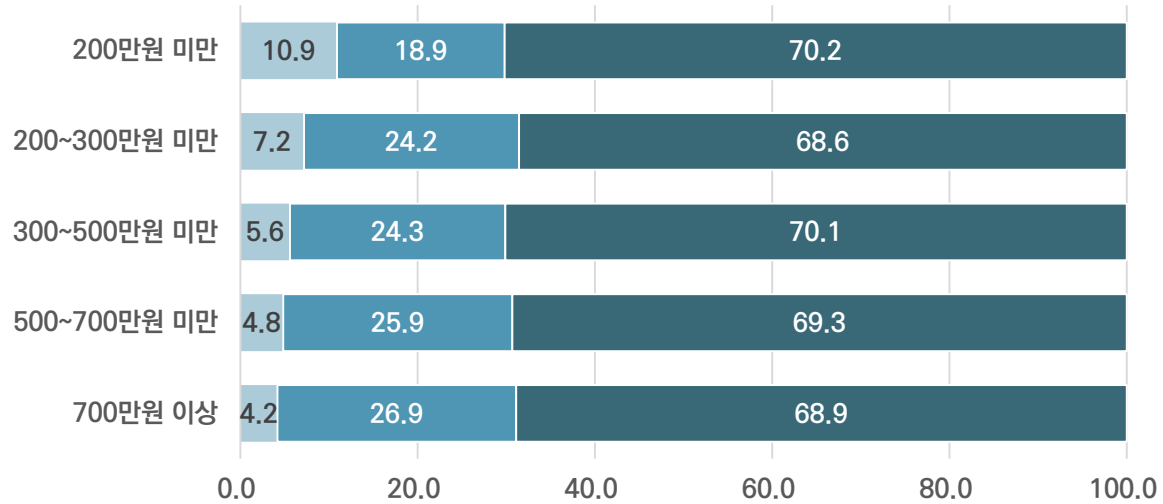
주: 1) 비해당(1인 가구, 미혼가구, 한부모 가구 등) 제외

2) 남편이 주도적으로 분담(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아내가 주도적으로 분담(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가구소득별

(단위: %)

■ 남편이 주도적으로 분담 ■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 ■ 아내가 주도적으로 분담



주: 1) 비해당(1인 가구, 미혼가구, 한부모 가구 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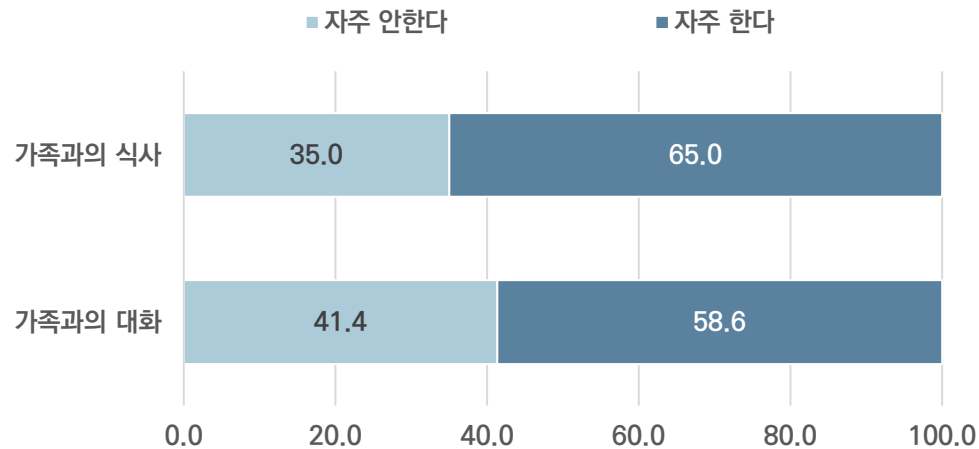
2) 남편이 주도적으로 분담(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아내가 주도적으로 분담(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서울시민 10명중 5~7명은 가족과 자주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 65%는 식사를 자주, 58.6%는 대화를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나
- 한편, 41.4%는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5,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소득수준별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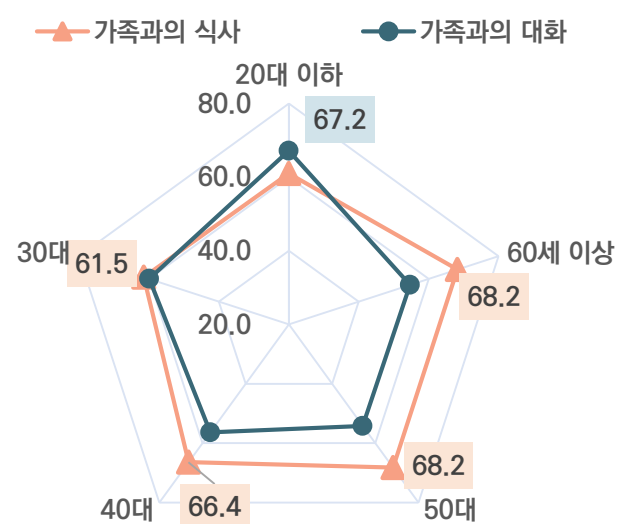
(단위: %)



주: 1) 자주 안한다(전혀 안한다+가끔한다), 자주 한다(자주 한다+항상 한다)
2) 해당사항 없음 제외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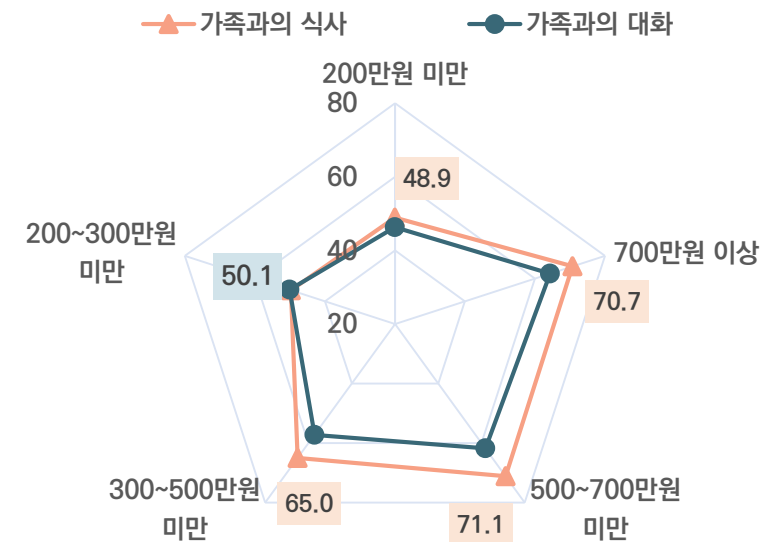
(단위: %)



주: 1) 자주 한다(자주 한다+항상 한다)의 비율
2) 해당사항 없음 제외

가구소득별

(단위: %)



주: 1) 자주 한다(자주 한다+항상 한다)의 비율
2) 해당사항 없음 제외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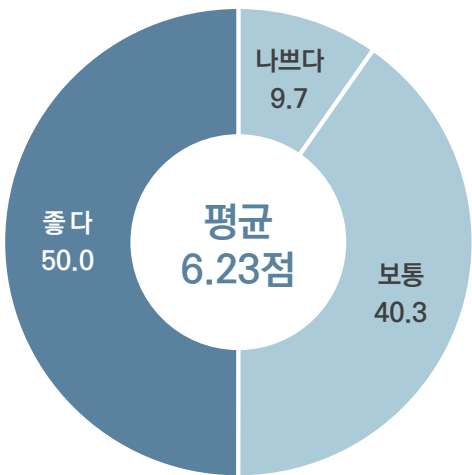
건강

서울시민의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6.23점으로 ‘보통이상’

- 서울시민 50%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 좋음’, ‘보통’은 40.3%, ‘나쁨’은 9.7%에 불과
- 건강만족도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고령자의 38.5%만이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해
- 서초구(59.9%), 중구와 강남구(59.0%), 종로구(57.4%)에서 ‘ 좋음’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관적 건강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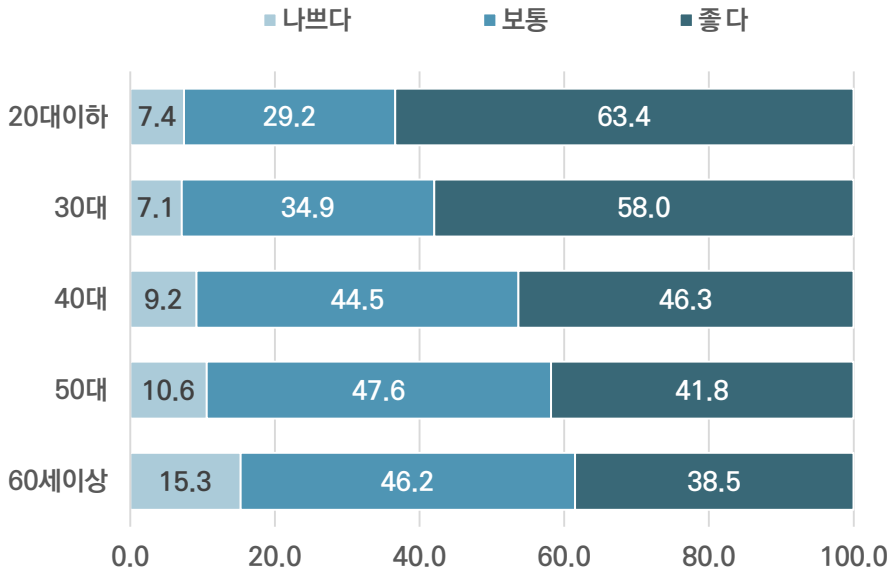
(단위: %, 점)



주: 1) 나쁘다(매우 나쁘다+나쁜 편이다), 좋다(매우 좋다+좋은 편이다)
2) 10점 기준 환산 평균값(높을수록 긍정)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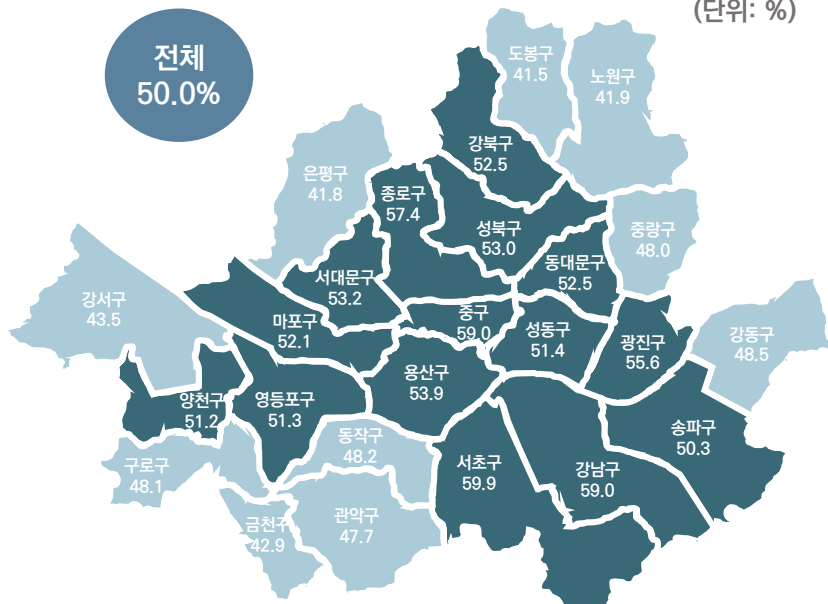
(단위: %)



주) 나쁘다(매우 나쁘다+나쁜 편이다), 좋다(매우 좋다+좋은 편이다)

25개 자치구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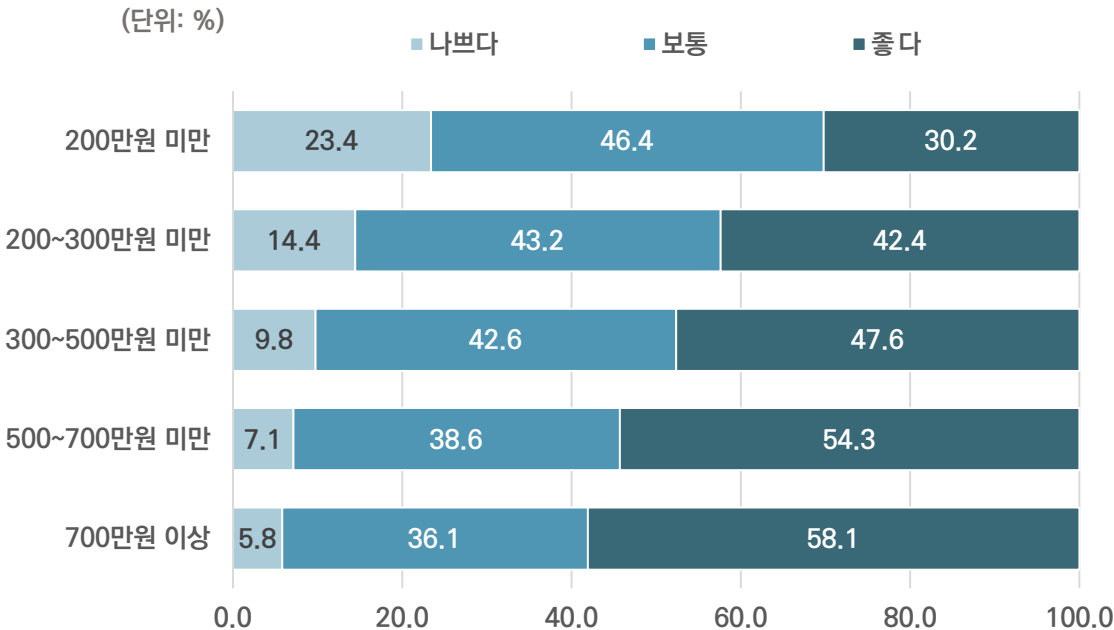


주) 좋다(매우 좋다+좋은 편이다)의 비율

소득집단별로 주관적 건강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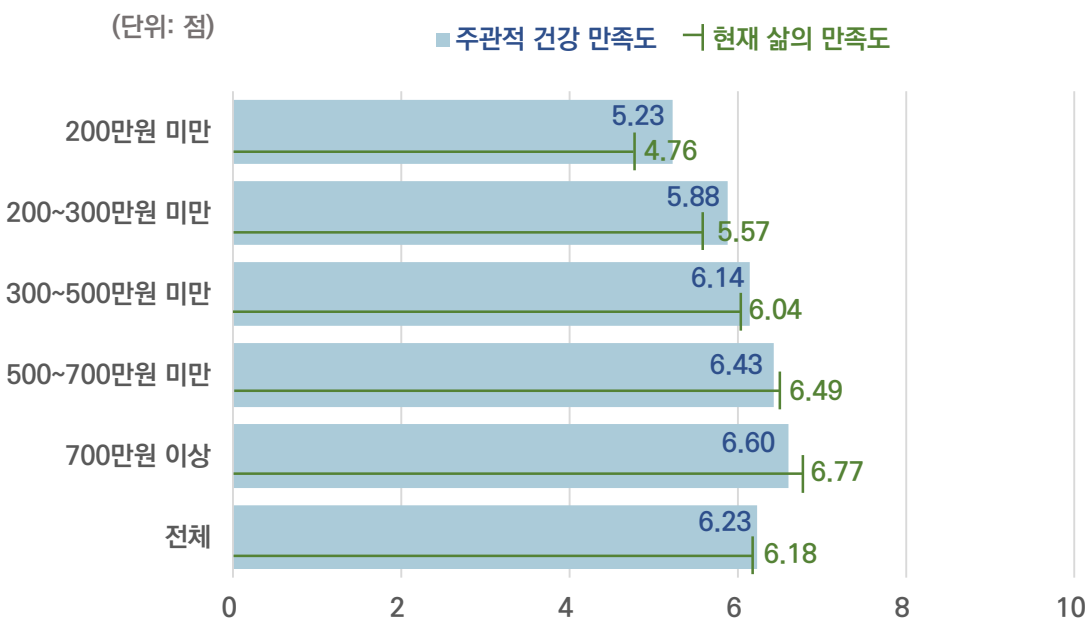
- 200만원 미만 소득자의 23.4%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700만원 이상 집단은 이 비율이 5.8%에 지나지 않아 거의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 저소득계층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건강 문제가 가중되는 현황임을 유추할 수 있어

가구소득별



주) 나쁘다(매우 나쁘다+나쁜 편이다), 좋다(매우 좋다+좋은 편이다)

가구소득별 주관적 건강만족도와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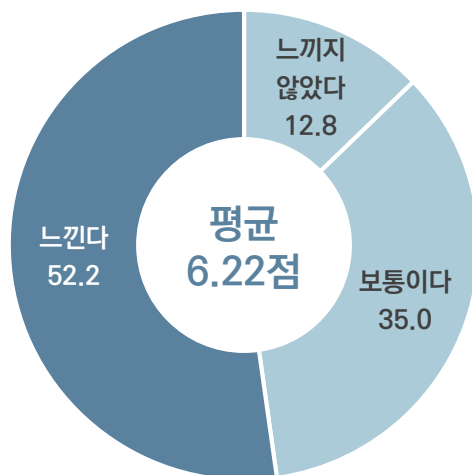
주: 1) 주관적 건강만족도 : 10점 기준 환산 평균 값
2) 주관적 행복감 : 현재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0~10)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정도는 여성,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응답자의 52.2%가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꼈으며, 보통 35%, 느끼지 않음 12.8%로 나타나
- 여성의 55.2%, 남성의 49.1%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 30대 58.1%, 20대 55.7% 등으로 나타나(60세 이상은 39.5%) 젊은 연령계층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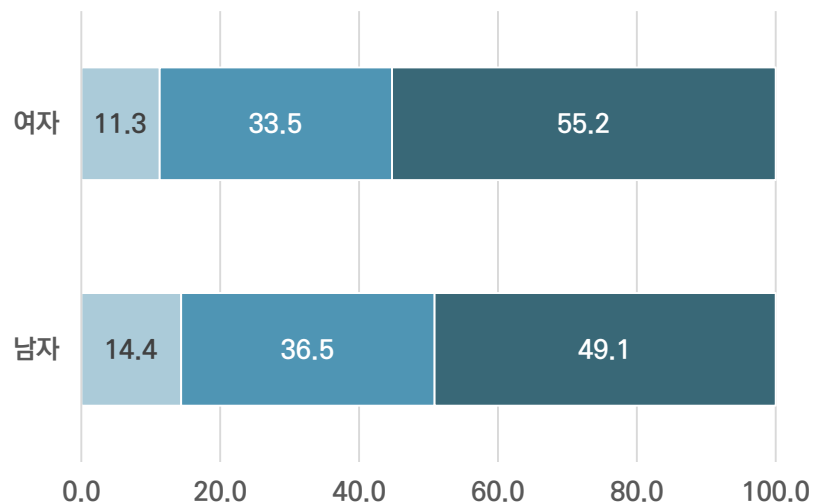


주: 1) 느끼지 않았다(전혀 느끼지 않았다+느끼지 않은 편이다),
느낀다(느낀 편이다+매우 많이 느꼈다)
2) 10점 기준 환산 평균값

성별

(단위: %)

■ 느끼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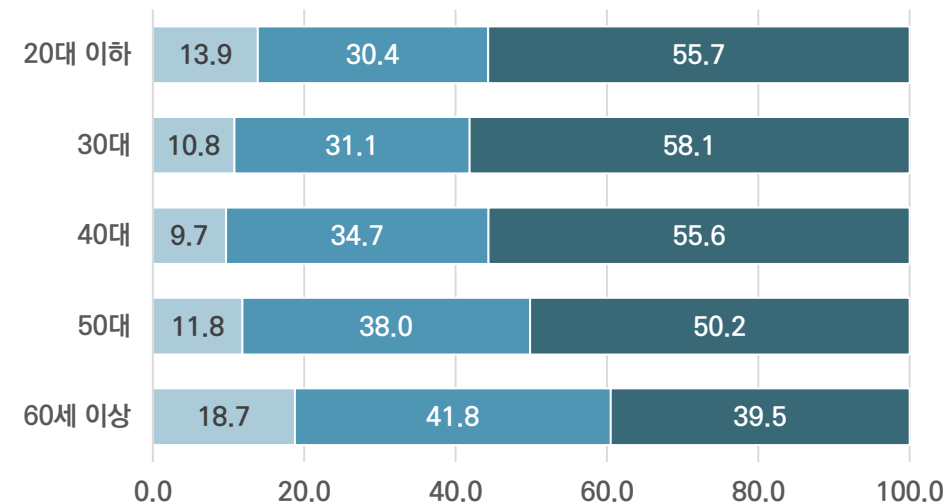


주) 느끼지 않았다(전혀 느끼지 않았다+느끼지 않은 편이다),
느낀다(느낀 편이다+매우 많이 느꼈다)

연령별

(단위: %)

■ 느끼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느낀다



주) 느끼지 않았다(전혀 느끼지 않았다+느끼지 않은 편이다),
느낀다(느낀 편이다+매우 많이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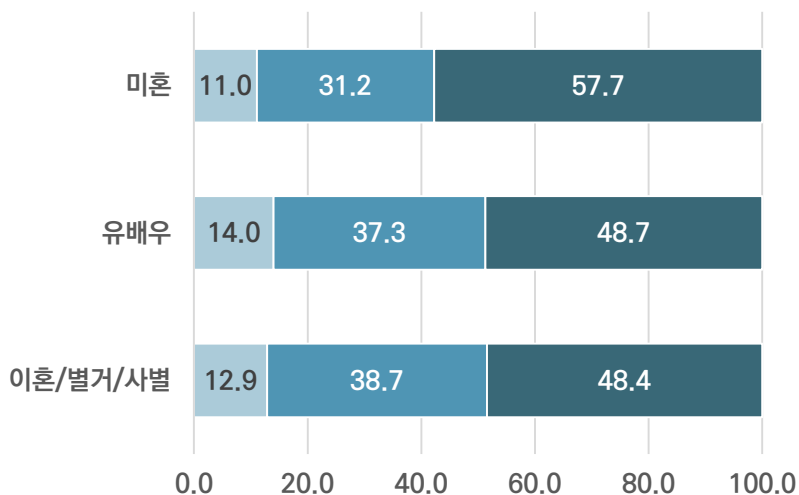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은 기혼보다는 미혼이, 다인가구보다 1인, 저소득계층에서 높아

- 미혼(57.7%), 1인 가구(56.1%), 200만원 이하 소득계층(59.2%)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게 나타나

혼인상태별

(단위: %)

■ 느끼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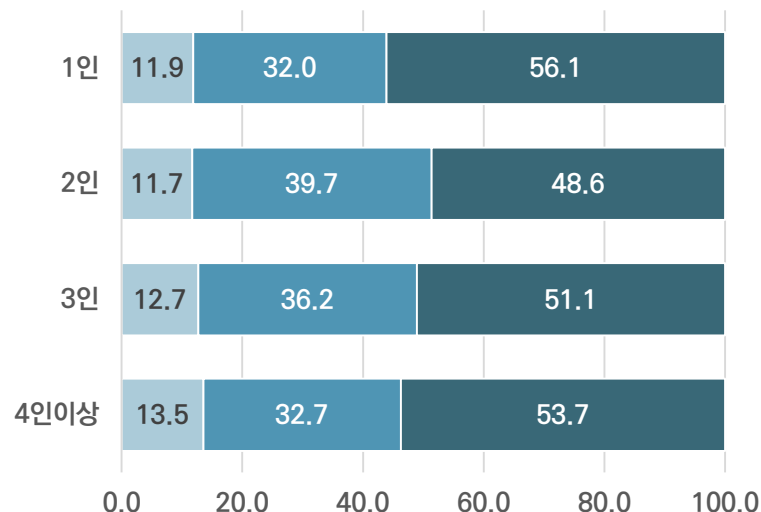


주) 느끼지 않았다(전혀 느끼지 않았다+느끼지 않은 편이다),
느낀다(느낀 편이다+매우 많이 느꼈다)

가구원수별

(단위: %)

■ 느끼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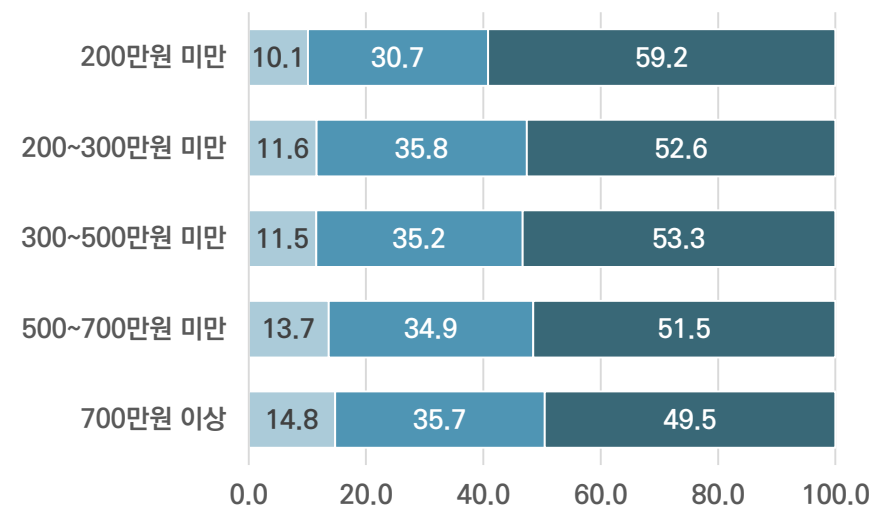


주) 느끼지 않았다(전혀 느끼지 않았다+느끼지 않은 편이다),
느낀다(느낀 편이다+매우 많이 느꼈다)

가구소득별

(단위: %)

■ 느끼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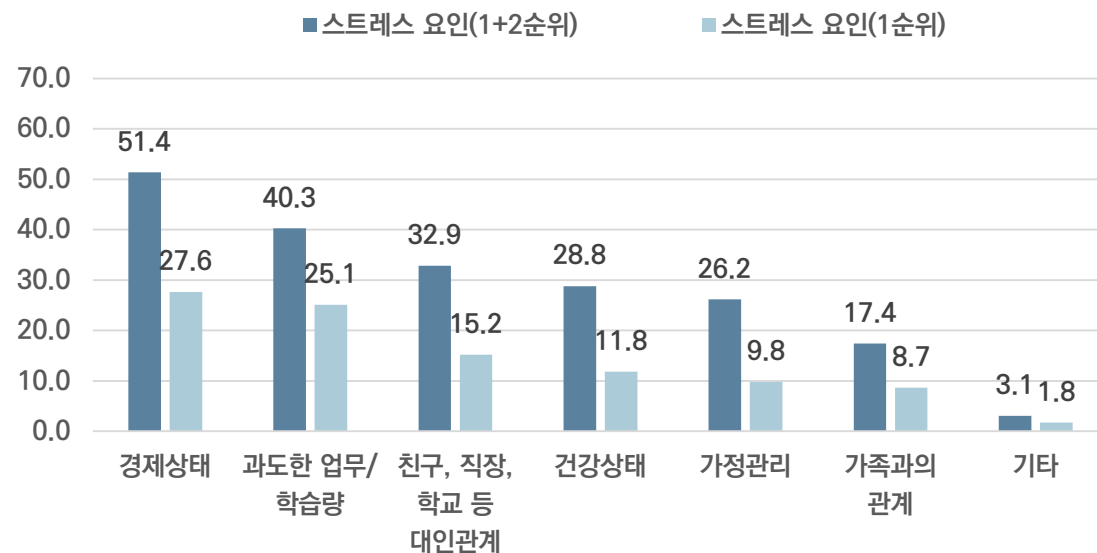
주) 느끼지 않았다(전혀 느끼지 않았다+느끼지 않은 편이다),
느낀다(느낀 편이다+매우 많이 느꼈다)

여성은 가족관계에서, 고령자는 건강, 중장년은 업무, 저소득계층은 경제문제가 원인

- 경제적인 문제(27.6%)나 일과 관련한 요소들(25.1%)이 서울시민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
- 대인관계 15.2%, 건강상태 11.8%, 가정관리 9.8% 순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나타나
-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관계를 포함한 관계성이 스트레스의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으며
- 저소득 가구는 경제문제, 건강으로 인해, 고소득가구는 과도한 업무와 가정관리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요인

(단위: %)



주: 1) 스트레스를 느낀 응답자(보통이다, 느낀 편이다, 매우 많이 느꼈다)
2) 복수응답(순서대로 두 가지)

1순위 (단위: %)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 관계	대인 관계	과도한 업무량	가정 관리	기타
전체		11.8	27.6	8.7	15.2	25.1	9.8	1.8
성별	여자	12.8	24.4	11.1	14.4	21.4	14.0	1.9
	남자	10.7	31.1	6.1	16.1	29.1	5.3	1.6
연령별	20대 이하	7.3	25.5	6.1	18.9	35.9	3.4	2.9
	30대	8.3	27.5	7.1	17.0	30.3	8.6	1.2
	40대	11.2	27.1	9.9	14.5	25.5	10.6	1.2
	50대	13.1	29.3	9.7	14.2	20.3	12.2	1.3
	60세 이상	21.3	29.2	11.2	10.4	10.3	15.4	2.3
	70세 이상	21.3	29.2	11.2	10.4	10.3	15.4	2.3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16.4	44.9	9.6	7.9	13.9	5.3	2.1
	200~300만원 미만	13.4	33.8	9.3	14.3	20.8	6.2	2.0
	300~500만원 미만	13.3	29.7	8.2	15.0	22.6	9.5	1.8
	500~700만원 미만	9.7	24.3	8.9	16.7	27.1	11.9	1.3
	700만원 이상	9.9	20.0	8.5	16.8	31.7	11.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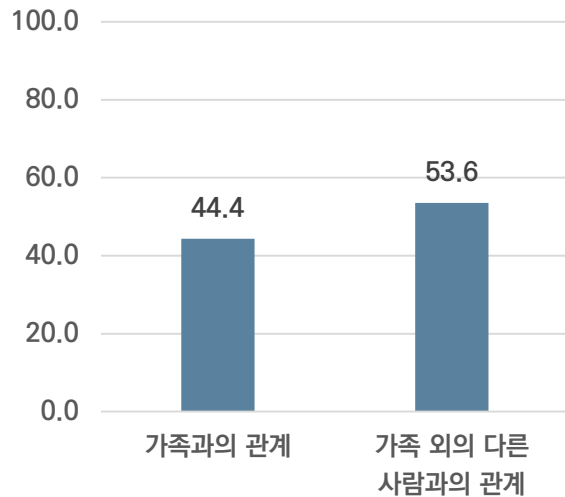
주) 스트레스를 느낀 응답자(보통이다, 느낀 편이다, 매우 많이 느꼈다), 1순위

서울시민의 외로움 인지율은 49%로 과반수에 가깝게 나타나

- 서울시민의 53.6%는 가족 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가족관계에서도 44.4%가 외롭다고 해
- 3, 40대 연령층에서 가족 외 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 미혼보다는 유배우 집단에서 가족관계로 부터의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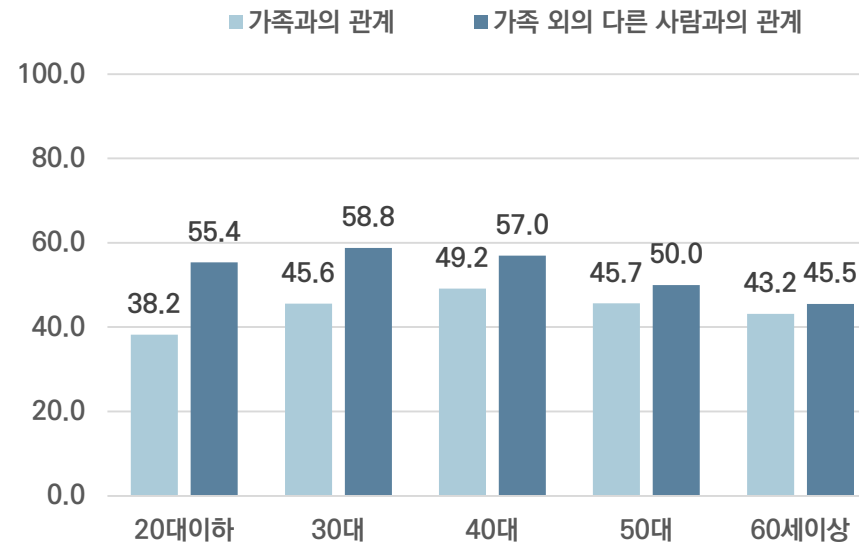
(단위: %)



주) 외로움을 느끼는 응답자(매우 그렇다+그렇다)의 비율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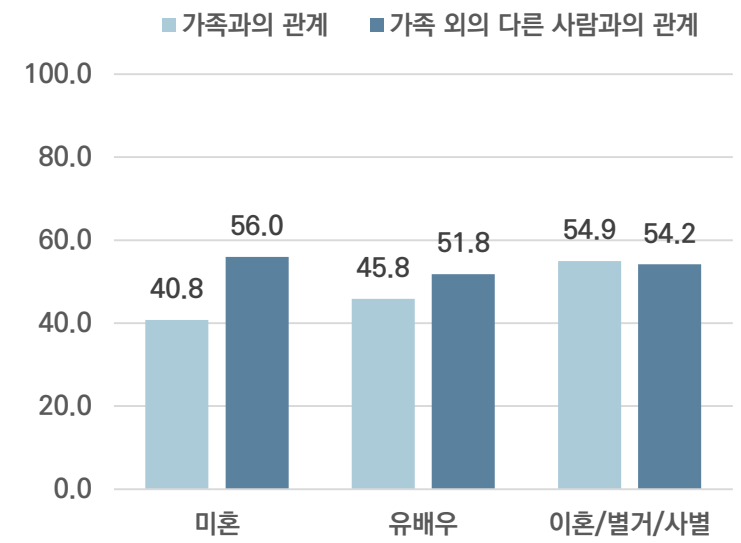
(단위: %)



주) 외로움을 느끼는 응답자(매우 그렇다+그렇다)의 비율

혼인상태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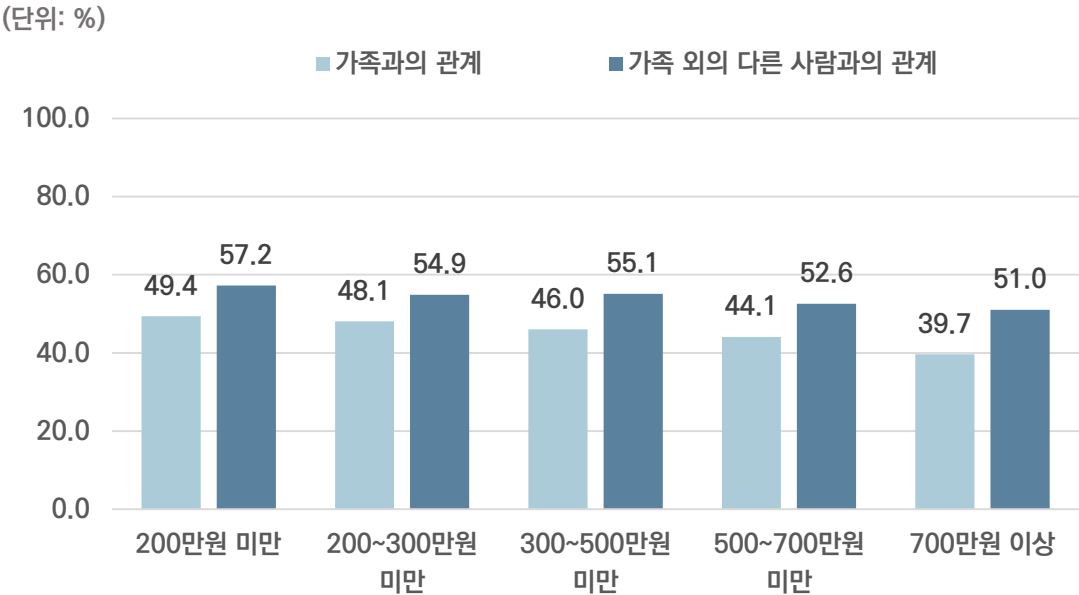


주) 외로움을 느끼는 응답자(매우 그렇다+그렇다)의 비율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며, 주관적 행복감도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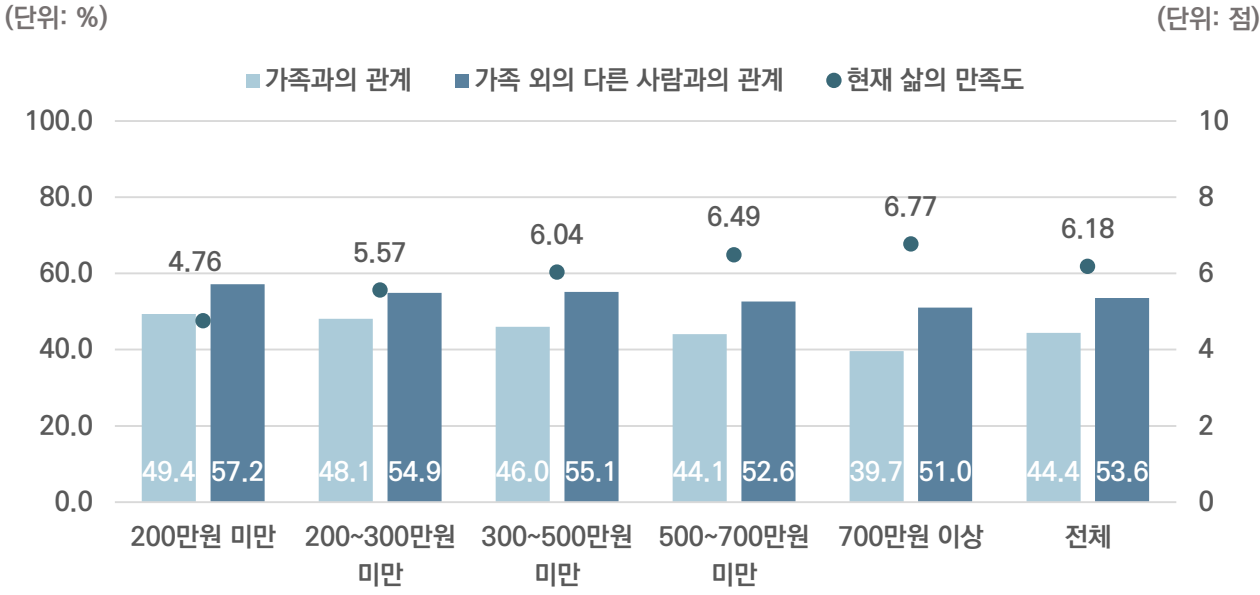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구소득별



주) 외로움을 느끼는 응답자(매우 그렇다+그렇다)

가구소득별 외로움 비율과 주관적 행복



주: 1) 외로움을 느끼는 응답자(매우 그렇다+그렇다)
2) 주관적 행복감 : 현재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0~1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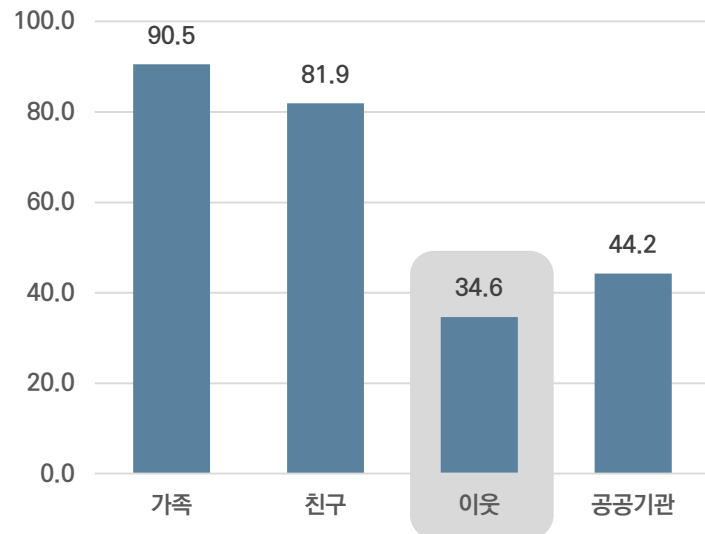
사회통합

서울시민의 이웃신뢰도는 34.6%, 공공기관 신뢰도는 44.2%

-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가족, 친구, 공공기관 신뢰도에 비해 가장 낮아
- 1인 가구의 경우 이웃 신뢰도가 19.9%로 가장 낮게 나타나
-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웃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신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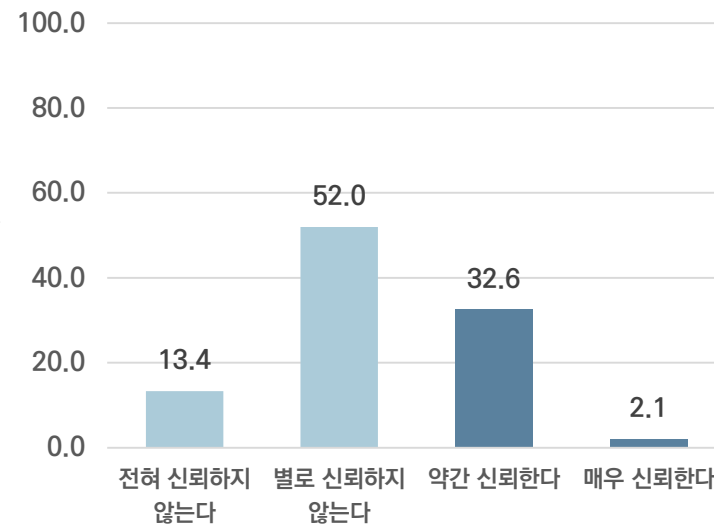
(단위: %)



주) 신뢰한다(약간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

이웃 신뢰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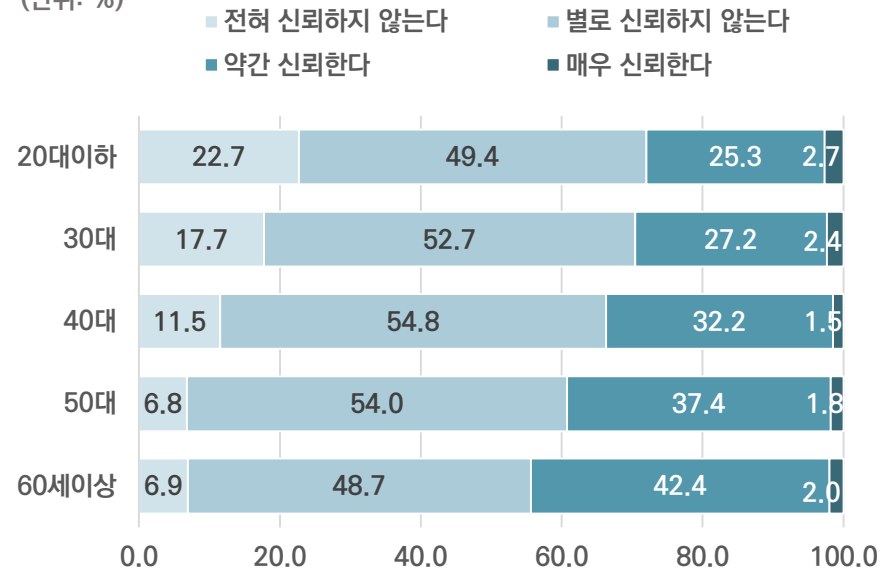
(단위: %)



주) 이웃에 대한 응답 기준

연령별 이웃신뢰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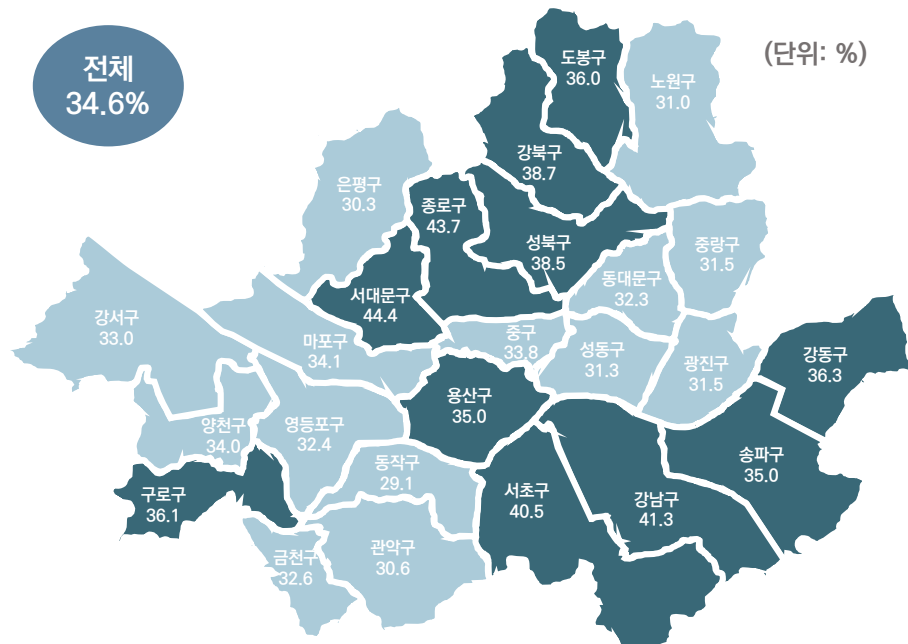


주) 이웃에 대한 응답 기준

이웃신뢰가 높은 자치구는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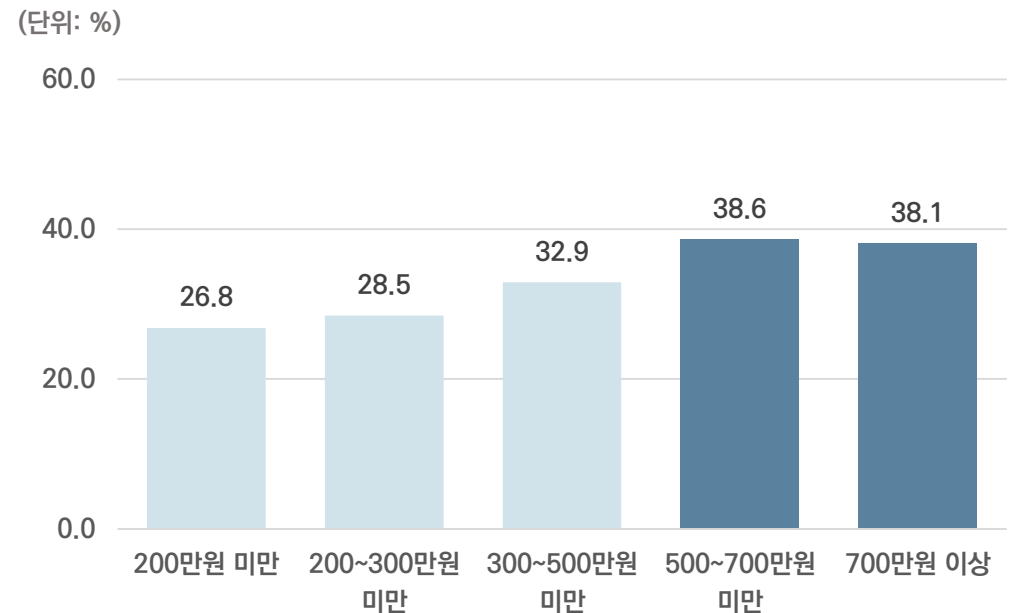
- 서대문구의 이웃신뢰도가 44.4%로 가장 높고, 종로 43.7%, 강남 41.3%, 서초 40.5% 순으로 나타나
- 월 평균 가구소득 500~7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웃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25개 구별 이웃신뢰도



주: 1) 이웃에 대해 신뢰한다 응답 기준
2) 신뢰한다(약간 신뢰한다 + 매우 신뢰한다)

소득수준별 이웃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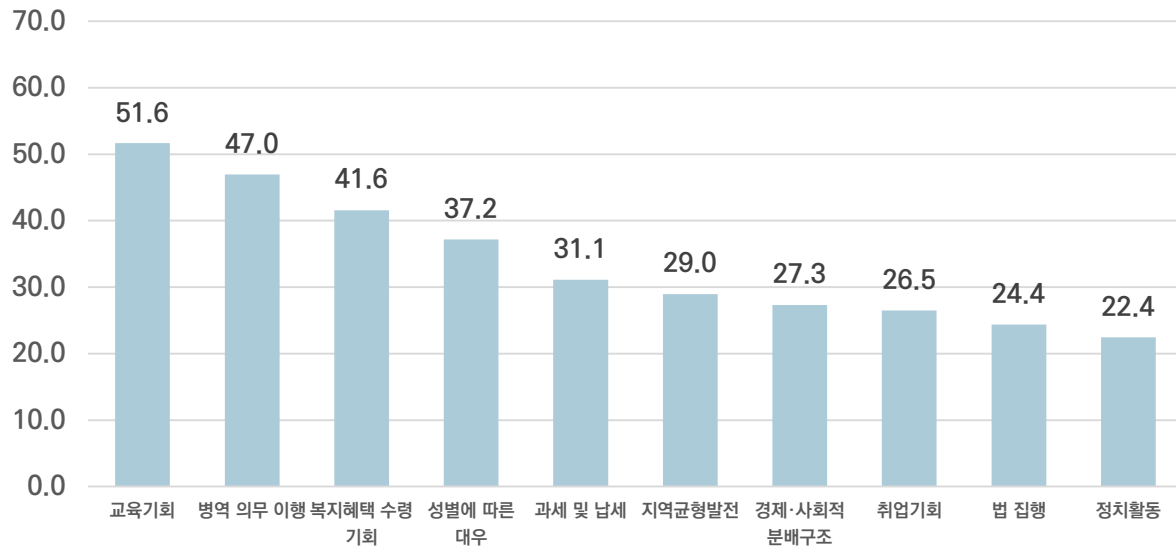
주: 1) 이웃에 대해 신뢰한다 응답 기준
2) 신뢰한다(약간 신뢰한다 + 매우 신뢰한다)

공정성 인식에서는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과반을 넘길 뿐 전반적으로 낮은 공정성 인식

-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영역은 정치활동, 법 집행, 취업기회, 분배구조, 지역균형발전, 세금납부 등으로 나타나

공정성 인식도

(단위: %)



주) 공정하다(약간 공정한 편이다 + 매우 공정하다)의 비율

(단위: %)		교육기회	취업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수령 기회	지역균형 발전	법 집행	정치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병역 의무 이행
전체		51.6	26.5	31.1	41.6	29.0	24.4	22.4	37.2	27.3	47.0
성별	여자	53.0	24.2	30.8	40.7	27.6	23.6	21.4	32.4	24.8	49.7
	남자	50.3	28.8	31.4	42.5	30.4	25.2	23.5	42.2	29.9	44.1
연령 별	20대이하	52.9	27.8	36.8	45.0	34.9	29.7	26.5	35.6	33.2	44.4
	30대	46.9	29.8	30.9	39.8	26.2	25.9	24.8	38.0	28.3	44.6
	40대	50.1	27.0	28.2	39.0	26.8	21.5	23.3	35.1	25.5	44.8
	50대	52.6	22.8	29.5	41.6	26.5	21.0	19.1	37.5	23.2	48.6
	60세이상	56.3	24.7	29.8	42.6	30.5	23.6	17.7	40.3	25.9	53.6
학력 별	고졸이하	50.1	24.8	34.1	39.7	31.9	23.9	20.8	37.6	28.2	48.0
	전문대졸	52.0	26.0	30.3	42.8	30.0	23.3	23.3	35.0	30.0	47.5
	대학교졸	52.1	26.7	31.3	41.8	28.4	24.7	23.0	37.4	26.9	46.4
	대학원 이상	50.7	28.1	27.0	41.7	26.5	24.5	20.9	37.5	25.1	48.3
가구 원수 별	1인	49.0	28.3	30.2	39.5	25.2	21.8	20.2	35.8	25.0	43.6
	2인	50.9	24.3	32.6	39.3	27.4	24.1	23.5	37.2	26.2	47.7
	3인	50.5	25.6	30.2	43.1	30.0	24.7	22.4	38.9	26.6	46.6
	4인이상	53.4	27.7	31.3	42.0	29.8	24.9	22.5	36.3	28.9	47.7
가구 소득 별	200만원 미만	46.2	22.8	31.6	36.7	28.6	22.3	19.1	34.6	23.1	44.8
	200~300만원 미만	50.2	22.8	31.0	41.7	28.5	20.4	21.0	32.3	26.4	44.0
	300~500만원 미만	52.3	26.0	30.4	42.6	30.0	25.0	24.1	36.8	27.2	47.8
	500~700만원 미만	52.9	28.6	33.2	41.0	29.4	26.4	24.3	40.0	29.7	47.5
	700만원 이상	52.0	28.0	30.0	42.3	27.7	24.4	20.6	38.2	26.9	47.7
이념 성향 별	진보	49.3	23.5	32.5	45.0	24.4	18.5	21.5	33.3	21.4	45.2
	중도	49.7	23.2	28.8	38.4	26.8	22.2	19.7	34.5	26.0	45.0
	보수	55.5	32.3	32.9	43.1	34.4	30.9	26.3	42.9	32.8	50.4

주) 공정하다(약간 공정한 편이다 + 매우 공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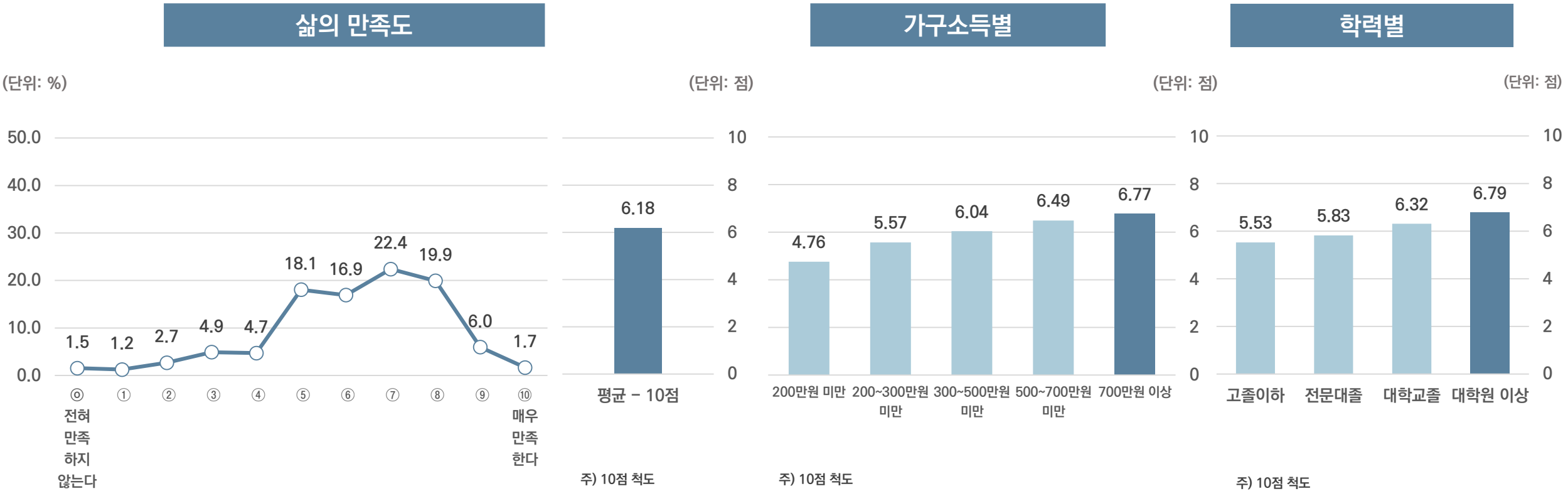
10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서울시민 행복도는 6.18점, 고소득자의 행복도는 저소득자에 비해 30% 정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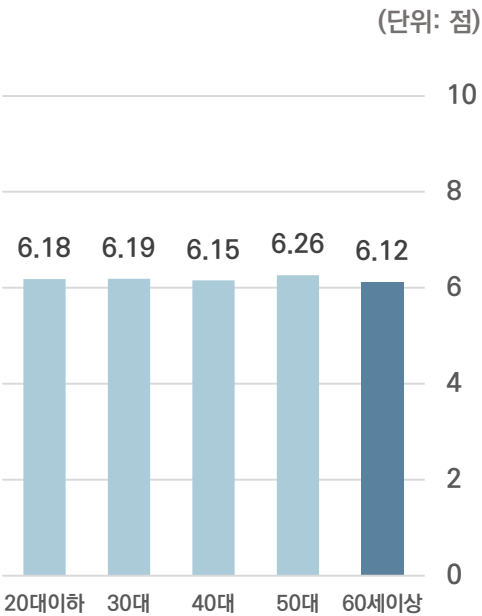
- 현재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0~10점)는 6.18점으로 나타나
- 7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77점, 2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은 4.76점으로 행복도 평균에서 차이를 보여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민 행복도는 6.18점, 고소득자의 행복도는 저소득자에 비해 30% 정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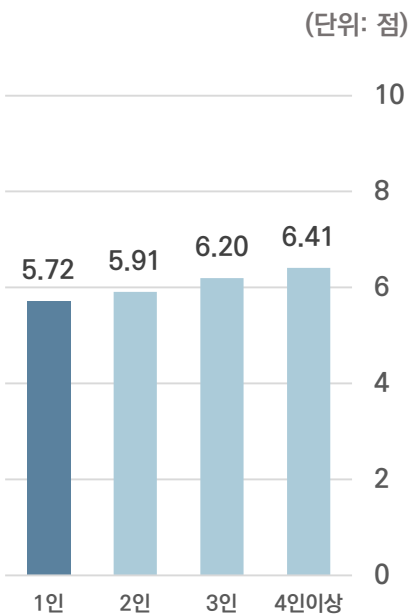
- 60세 이상, 1인 가구, 이혼/별거/사별, 종교가 없는 경우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낮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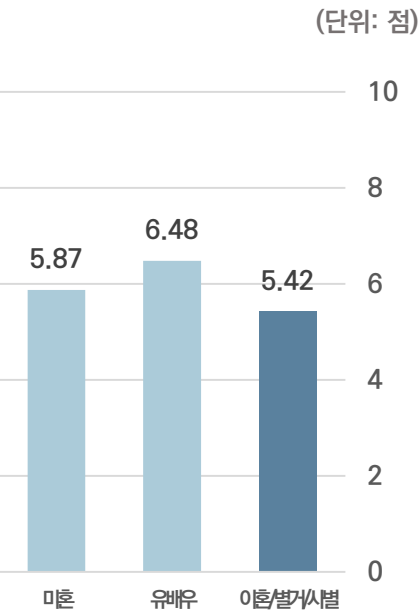
주) 10점 척도

가구원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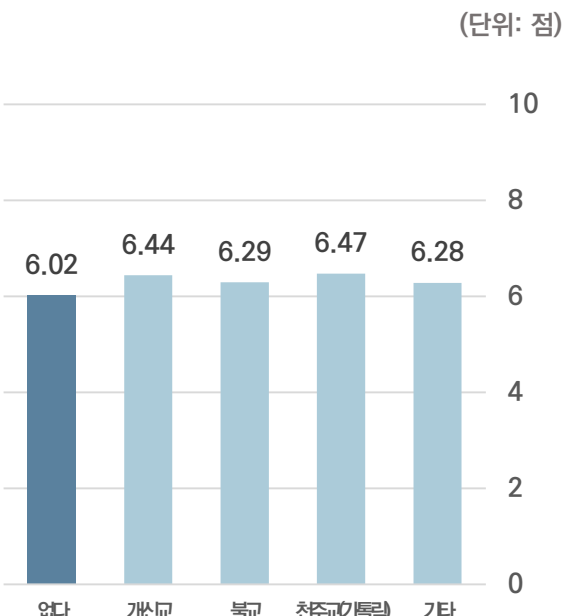
주) 10점 척도

혼인상태별



주) 10점 척도

종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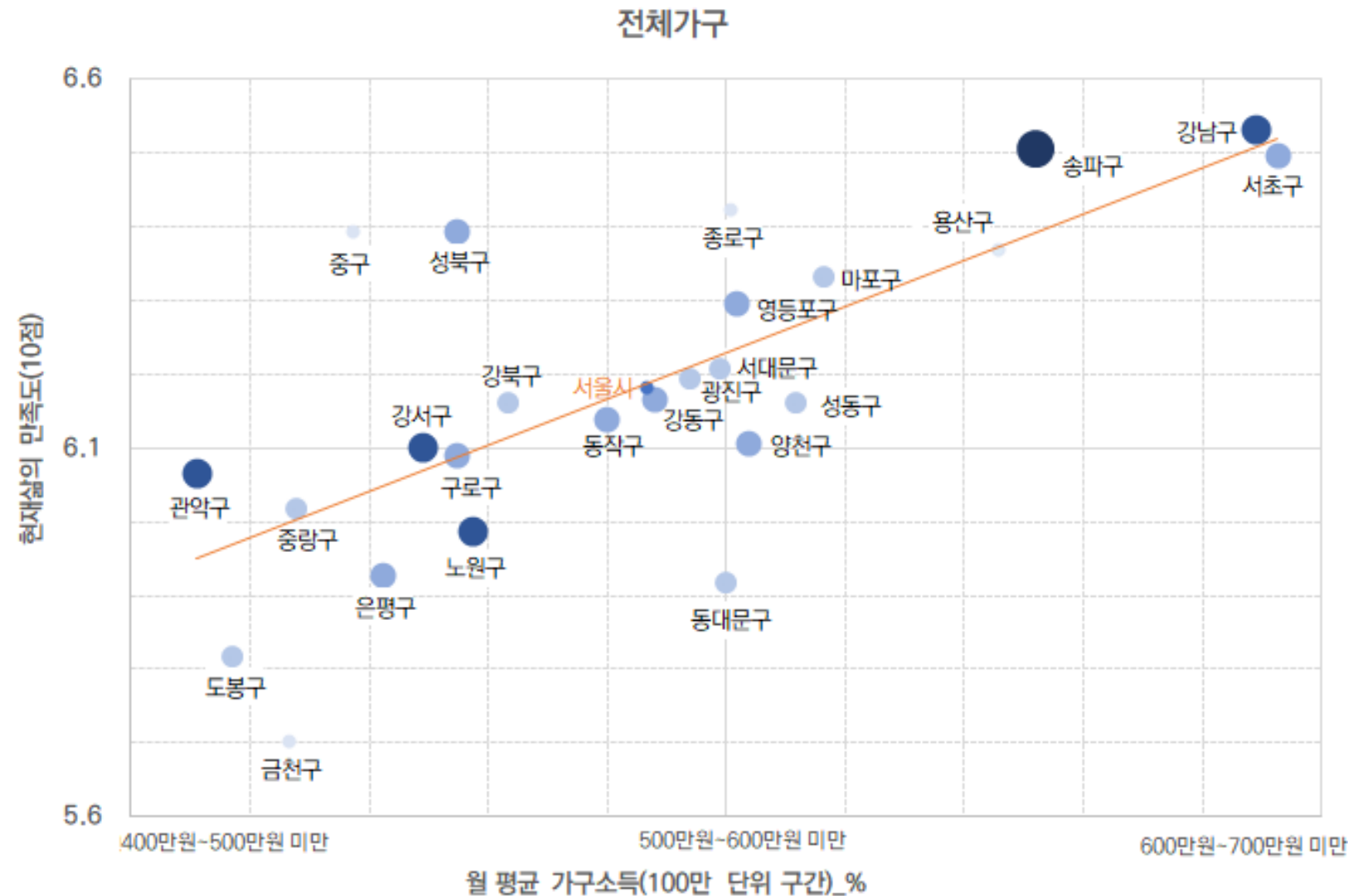


주) 10점 척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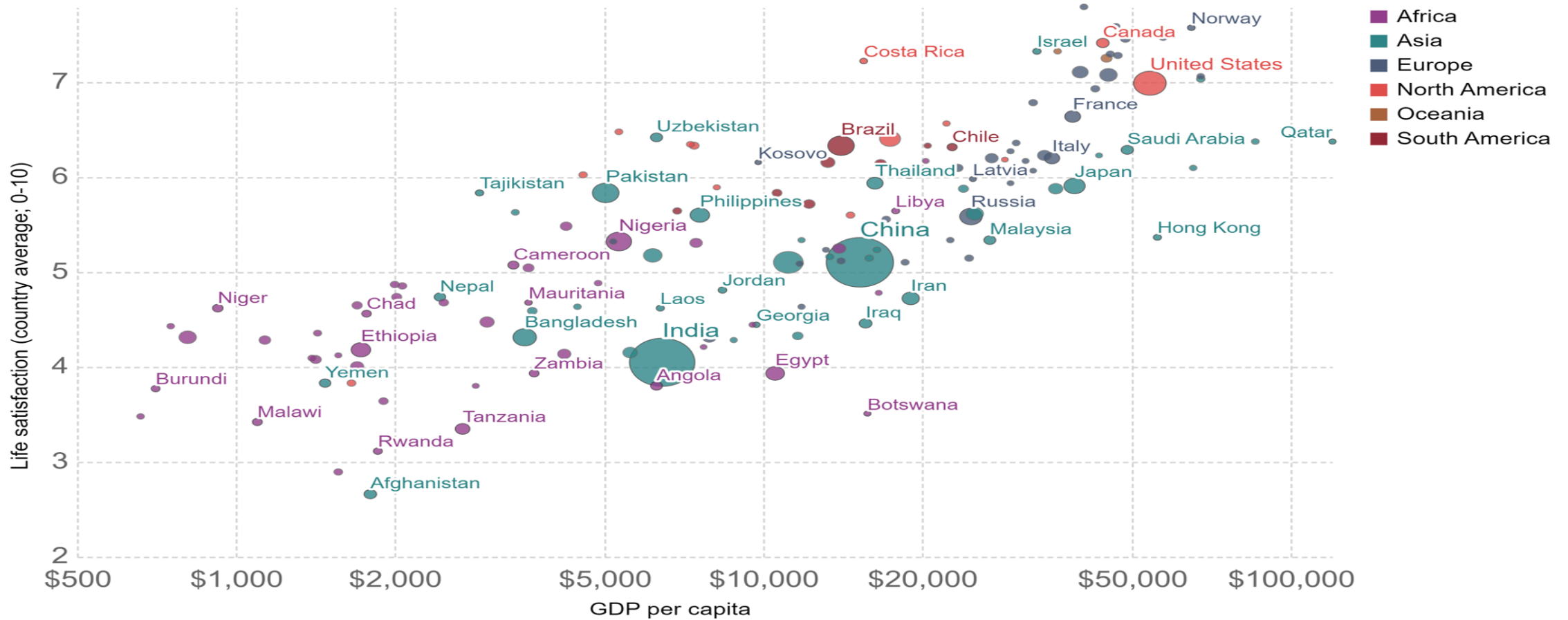
서울의 지역간
행복격차는 어느정도
인가?

자치구의 행복도와 지역 평균소득간의 관계성



자치구별 주민등록인구(2020년, 명)	
	300,000미만
	300,000이상~400,000미만
	400,000이상~500,000미만
	500,000이상~600,000미만
	600,000이상

글로벌 사회의 행복도와 소득간의 관계성



Source: World Happiness Report (2019), World Bank

OurWorldInData.org/happiness-and-life-satisfaction/ • CC BY

자치구의 행복을 설명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영역	지표			지표수
1. 주거안정성	1.1. 아파트 거주 비율	1.2. 평균소득		3
2. 환경		2.2. 생활환경 만족도		8
3. 교통		3.3.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3.5. 보행환경 만족도	6
4. 교육		4.3. 교육환경 만족도		5
5. 경제생활		5.2. 소득만족도		6
6. 일과 생활 균형			6.4.가사·돌봄 부담률(아동·노인 돌봄 포함)	6
7. 건강			7.4. 주관적 건강만족도	8
8. 문화여가			8.4. 문화환경 만족도	6
9. 사회통합	9.1. 공적 의사결정 참여경험	9.2. 지역자부심		9
	9.6. 사회적 지지			
10. 주관적 안녕감	10.1.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			4

지역사회의 행복도를 설명하는 요인은 대중교통만족도, 소득만족도, 지역자부심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기여도(contribution)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
- 『The World Happiness Report 2020』 방법론을 적용
- 선형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1%, 자치구별 삶의 만족도를 잘 설명해

회귀모형

구분	비표준화회귀계수	표준오차
대중교통이용만족도	0.312	(0.108)**
소득만족도	0.188	(0.085)***
지역자부심	0.543	(0.159)**
상수	0.098	(0.797)
사례수	25 자치구	
R^2	0.81	
F-값	3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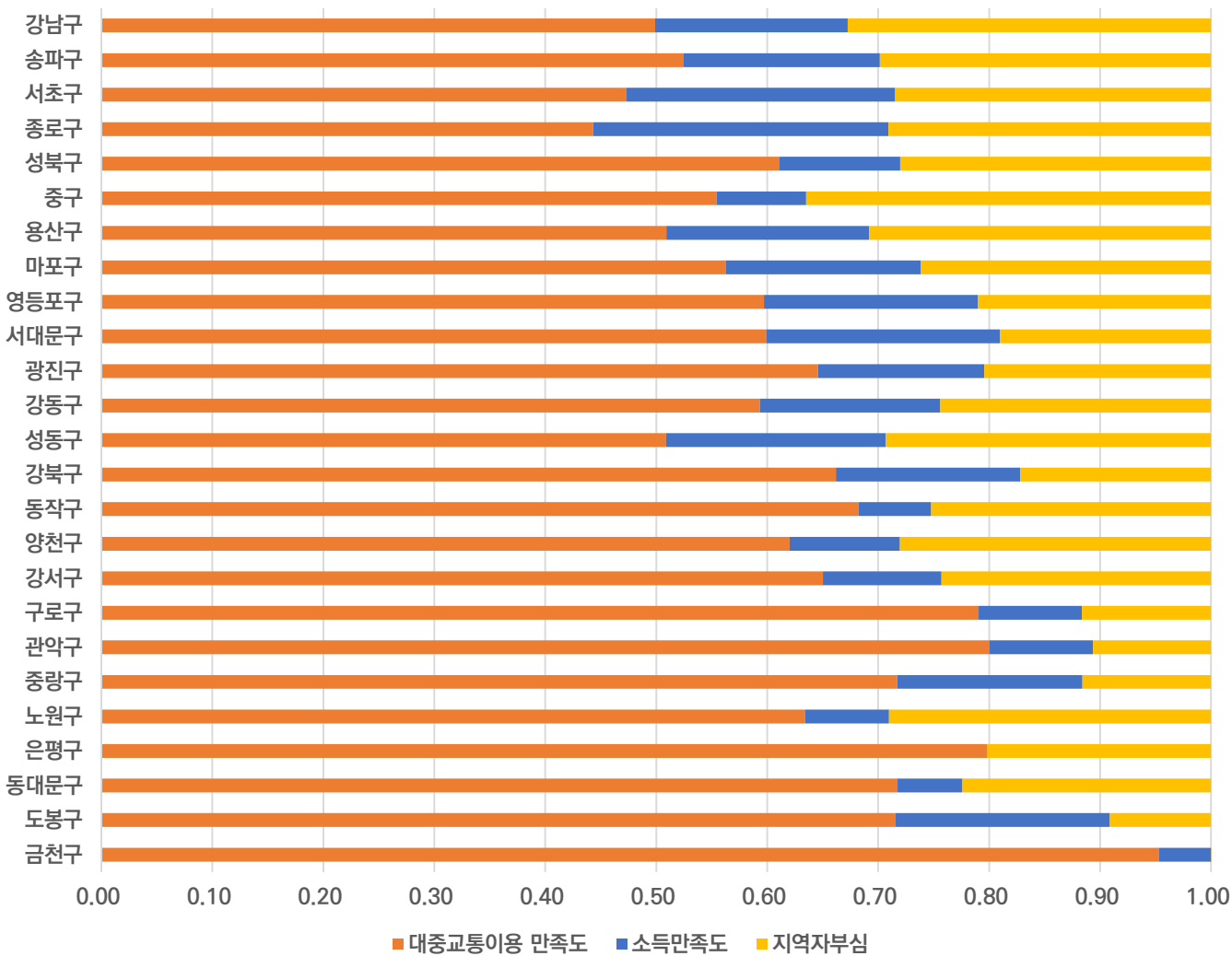
*p<0.1, **p<0.05, ***p<0.001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자치구	대중교통이용만족도	소득만족도	지역자부심
종로구	0.3770	0.2261	0.2472
중구	0.5210	0.0760	0.3431
용산구	0.4902	0.1763	0.2965
성동구	0.4504	0.1752	0.2593
광진구	0.4405	0.1023	0.1394
동대문구	0.5052	0.0410	0.1578
종량구	0.4557	0.1059	0.0737
성북구	0.5365	0.0960	0.2462
강북구	0.4126	0.1034	0.1073
도봉구	0.4155	0.1122	0.0530
노원구	0.5043	0.0604	0.2308
은평구	0.4515	0.0000	0.1140
서대문구	0.4363	0.1530	0.1386
마포구	0.4563	0.1426	0.2122
양천구	0.5257	0.0841	0.2377
강서구	0.4512	0.0741	0.1685
구로구	0.4505	0.0530	0.0663
금천구	0.3872	0.0190	0.0000
영등포구	0.4496	0.1450	0.1583
동작구	0.4825	0.0463	0.1783
관악구	0.3994	0.0466	0.0531
서초구	0.4174	0.2135	0.2511
강남구	0.4645	0.1615	0.3048
송파구	0.4961	0.1677	0.2823
강동구	0.4927	0.1349	0.2026

세 요소들의 자치구별 행복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나

자치구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의 상대적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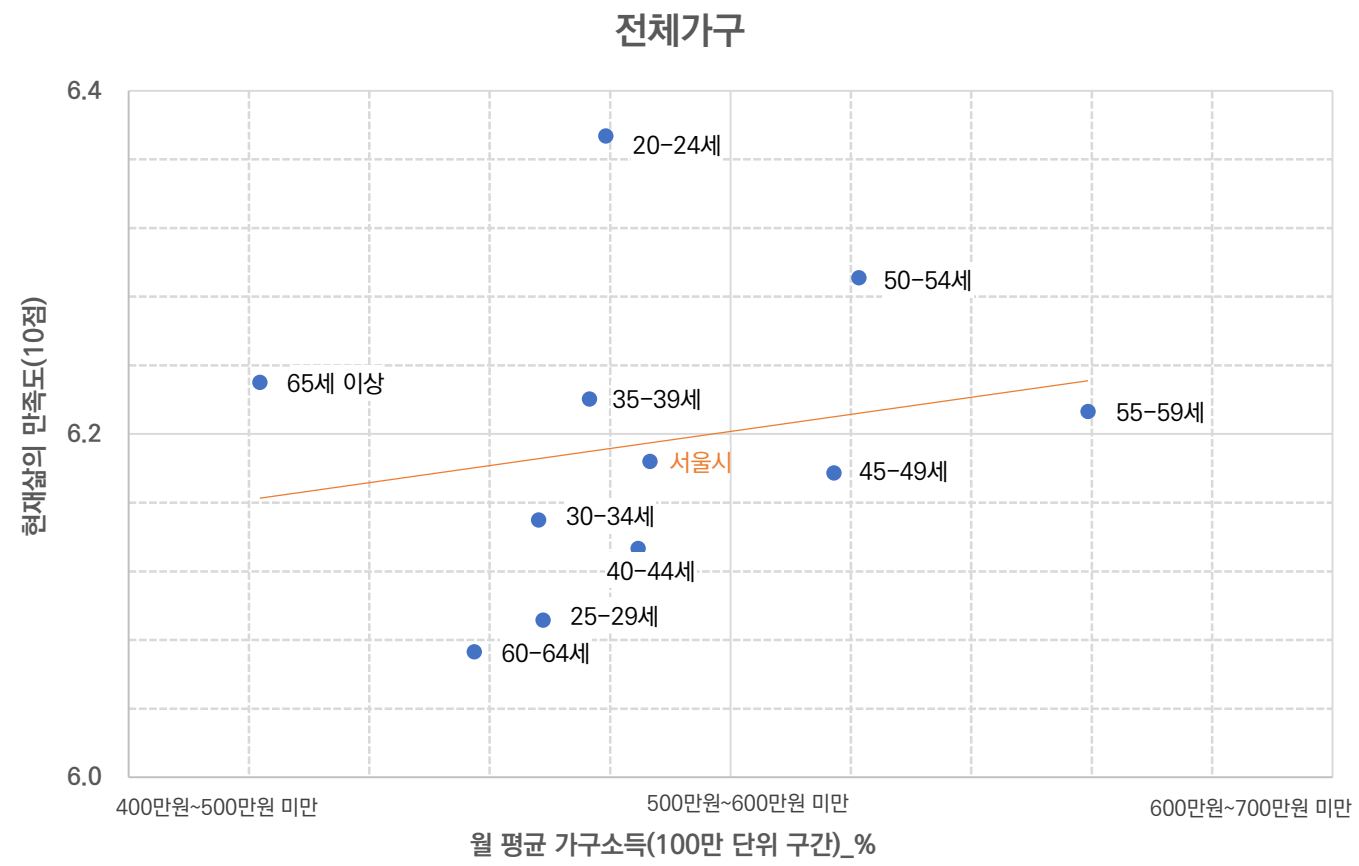


자치구	기여도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소득만족도	지역자부심
금천구	0.387	0.019	0.000
도봉구	0.415	0.112	0.053
동대문구	0.505	0.041	0.158
은평구	0.451	0.000	0.114
노원구	0.504	0.060	0.231
중랑구	0.456	0.106	0.074
관악구	0.399	0.047	0.053
구로구	0.450	0.053	0.066
강서구	0.451	0.074	0.168
양천구	0.526	0.084	0.238
동작구	0.483	0.046	0.178
강북구	0.413	0.103	0.107
성동구	0.450	0.175	0.259
강동구	0.493	0.135	0.203
광진구	0.441	0.102	0.139
서대문구	0.436	0.153	0.139
영등포구	0.450	0.145	0.158
마포구	0.456	0.143	0.212
용산구	0.490	0.176	0.297
중구	0.521	0.076	0.343
성북구	0.537	0.096	0.246
종로구	0.377	0.226	0.247
서초구	0.417	0.214	0.251
송파구	0.496	0.168	0.282
강남구	0.465	0.161	0.305
평균	0.459	0.109	0.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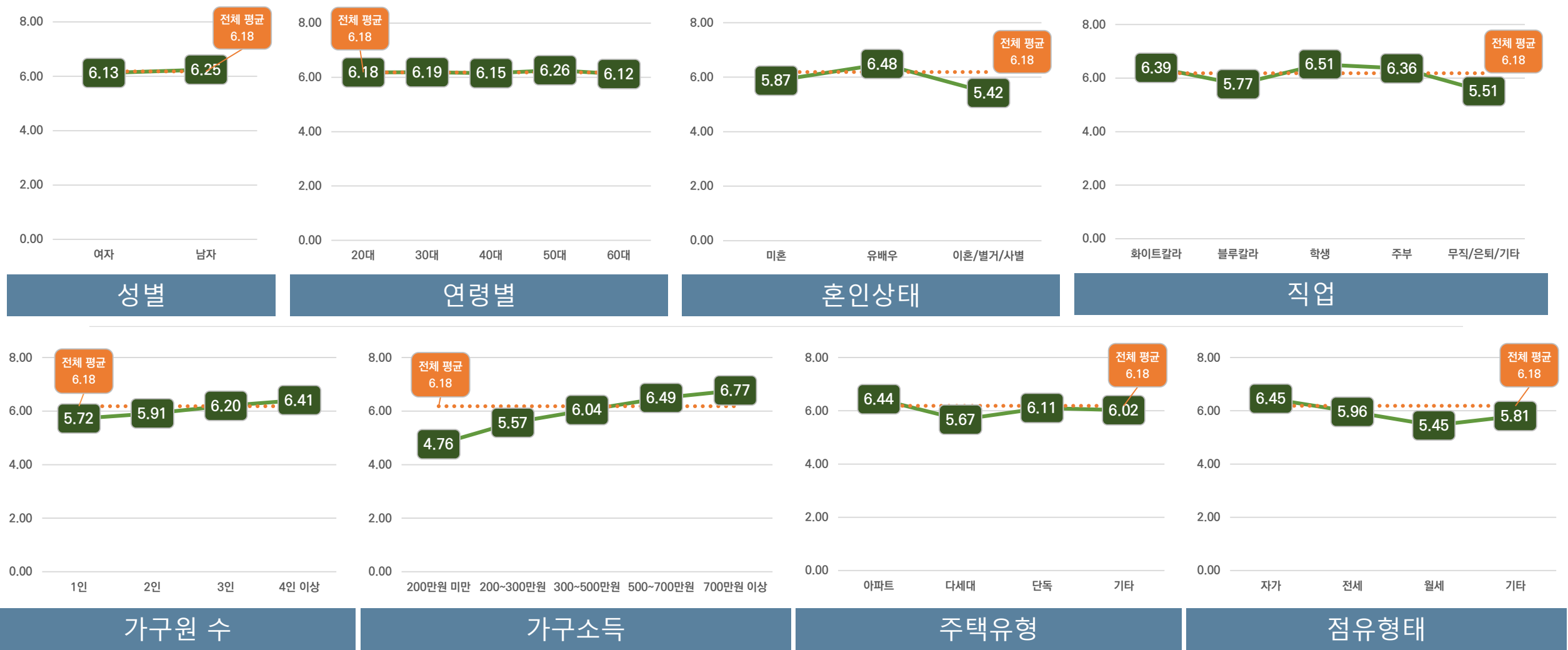
12

서울의 행복약자는
누구인가?

20대 중·후반, 30대, 4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행복도가 낮게 나타나고



여성, 이혼, 별거, 무직, 1인가구, 저소득층, 월세거주자의 행복도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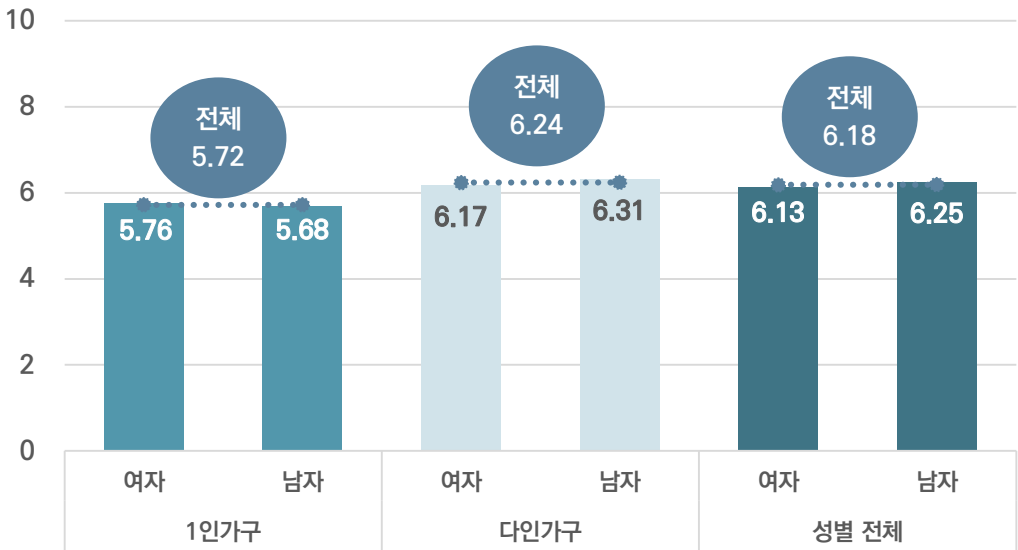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가운데, 40대 1인가구 열악해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내 성별, 청년/중장년/노인의 현재 삶의 만족도(0~10점) 평균을 살펴보면,
- 1인가구 전체가 5.72점으로 다인가구(6.24점)보다 낮고, 전체(6.18점) 보다 낮아
- 성별로는 1인가구 내 남자가 5.68점, 다인가구 내 여자가 6.1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 연령별로는 1인가구 내 40~64세가 5.35점, 다인가구 내 20~39세가 6.22점으로 나타나

성별 - 1인 VS 다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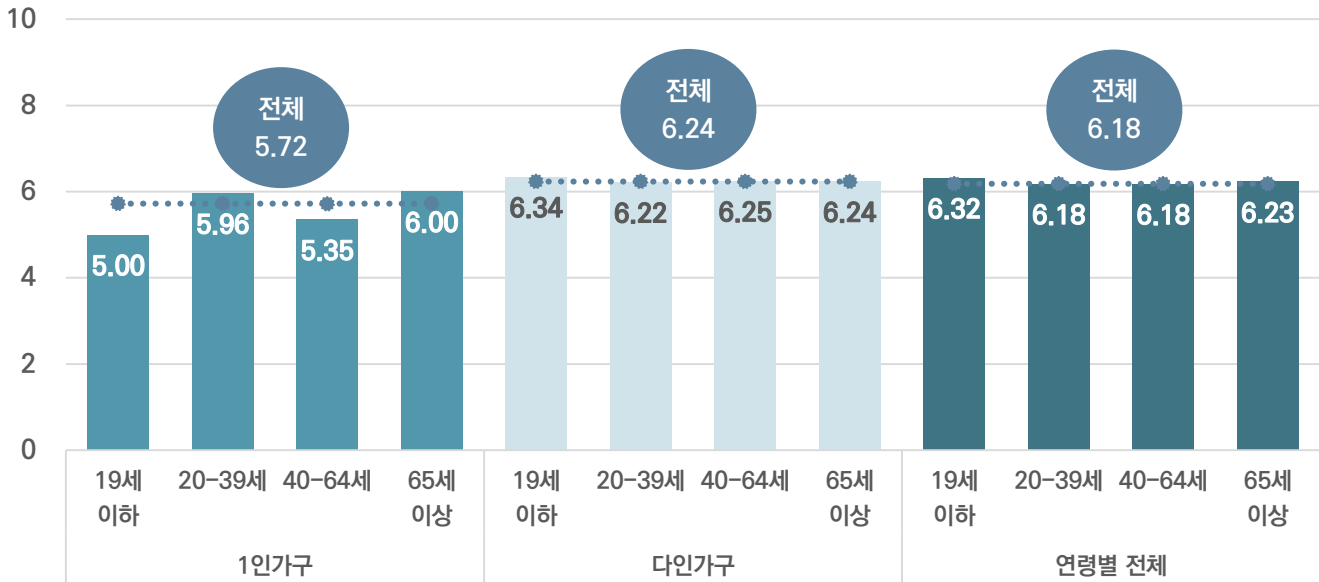
(단위: 점)



주) 10점 척도

청년/중장년/노인 - 1인 VS 다인가구

(단위: 점)



주) 10점 척도

서울시민의 행복 영향 요인 분석 (*서울시민행복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 데이터 : 2021 서울시민 행복실태조사
- 분석방법: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
- 변수:
 - 인구사회학적요인(연령, 성별)
 - 경제적 요인(가구소득)
 - 건강요인(주관적 건강만족도)
 - 사회자본 요인(포용성, 자원봉사 참여, 기부경험, 지역자부심, 공적의사결정 참여)
- $R^2 = 0.537$, $F(516.977)$, $P < 0.001$
- 영향력이 큰 변수: **긍정적 감정** ($\beta = .461$, $p < 0.001$), **서울시민 자부심** ($\beta = .193$, $p < 0.001$), **주관적 건강만족도** ($\beta = .112$, $p < 0.001$)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beta = .100$, $p < 0.001$) 순

회귀분석 결과

모형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확률
1	(상수)		.018
	월 평균 가구소득	.100	.000
	연령(만)	-.011	.216
	성별(남성=1)	.027	.002
	신체적 지원망	.018	.048
	금전적 지원망	.041	.000
	정서적 지원망	.033	.000
	주관적 건강만족도	.112	.000
	삶의 선택 자율성	.050	.000
	포용성	-.001	.869
	자원봉사 참여	.000	.969
	기부 경험	.010	.275
	공적의사결정 참여	.065	.000
	지역자부심	.193	.000
	긍정적 감정	.461	.000
	부정적 감정	-.108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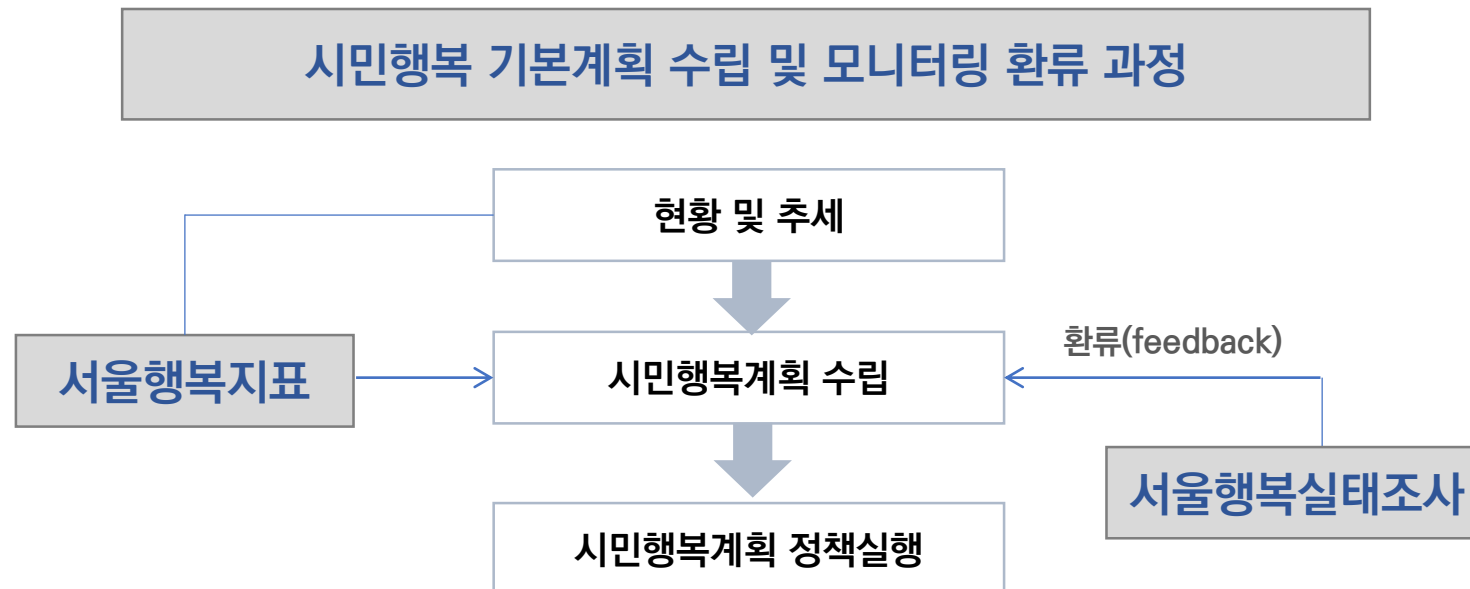
a. 종속변수: 주관적 행복도

3. 서울시민 삶의 질 관련 정책이슈



계획에 근거한 지표구축과 정책개발

- 시민행복을 서울 시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설정하는 행복계획 수립(2020년 초안 마련)
 - 기본계획: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시각에서 행복 증진을 위한 상호 연계성
 - 시민행복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 서울시민행복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행복취약 집단 대상 발굴 및 전략과제 연계성 확보



2024 서울행복플랜

서울시민행복증진기본계획 (2020년 수행 연구)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024 서울행복플랜〉 수립

- 목표

 - ‘덜 행복한 집단’, ‘지속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집단’ 발굴
 - 행복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전반적인 행복도 향상
- 내용

 - 3개 추진전략, 4개 추진과제, 12개 정책과제 설정
 - 정책과제별 대상, 방향,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제안
- 기간

 - 4개년 기본계획
 - 2021년~2024년

비전	모두가 함께 행복한, 행복수도 서울	
목표	행복격차 완화를 통한 시민 행복도 증진	
추진 전략	1	서울시 주요 정책과 융합하는 행복정책 수립
	2	대상·분야별 특성에 맞는 촘촘한 정책 설계
	3	시민과 차지구가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구축
추진 과제	행복격차 진단·완화 방안 마련	▶ 행복실태조사 통한 행복약자 발굴·지원 ▶ 자치구 행복격차 완화를 위한 행복교부금 마련 ▶ 시민 대상 행복 증진 교육 실시
	서울형 행복 전략과제 추진	▶ 시간빈곤 해결 정책 ▶ 청소년/청년 정신건강 케어 정책 ▶ 기후위기 대응 정책
	행복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시-구-교육청 협력 프로젝트 추진 ▶ 국내 지방정부 행복 네트워크 추진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행복시정 추진의 제도기반 구축	▶ 행복영향평가제도 및 행복인지예산 추진 ▶ 시민참여형 행복 모니터링 체계 구축 ▶ SDG와 행복지표의 연계

2024 서울행복플랜

서울시민행복증진기본계획

비전		모두가 함께 행복한, 행복수도 서울										
목표		행복격차 완화를 통한 시민 행복도 증진										
추진 전략	1	서울시 주요 정책과 융합하는 행복정책 수립										
	2	대상 · 분야별 특성에 맞는 촘촘한 정책 설계										
	3	시민과 자치구가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구축										
전략 과제	세부 목표1	격차와 차별완화를 위한 방안 조성		세부 목표2	시민참여형 행복 시정 구축		세부 목표3	행복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부 목표4	행복시정 추진의 제도기반 구축	
	영역 1-1	행복 격차 완화를 위한 행복약자 지원시스템 구축		영역 2-1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프로그램		영역 3-1	서울시 행복도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		영역 4-1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서울	
	정책1. 행복지표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정책2. 행복약자 지원 시스템 (1인가구, 청년세대, 40대) 정책3. 지역사회 행복응원 프로젝트			정책7. 시민참여형 행복모니터링 체계 구상 정책8. 행복증진 교육			정책9.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협력 프로젝트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 정책) 정책10. 국내 지방정부 행복 네트워크 추진 정책11.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추진			정책12. 행복영향평가제도와 행복인지예산 정책13. SDG와 행복지표의 연계		
	영역 1-2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 공존과 사회 지원 방안 조성										
	정책4. 시민외로움지수 개선을 위한 네이버후드 기반 연결망 구축 정책5.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공적 플랫폼 구축 정책6. 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 사회자본 구축											

2024 서울행복플랜

서울시민행복증진기본계획

세부
목표1

격차와 차별 완화를 위한 방안 조성

영역 1-1

행복 격차 완화를 위한 행복약자 지원시스템 구축

정책1

행복지표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정책2

행복약자
지원 시스템
(1인 가구,
청년세대,
40대)

정책3

지역사회
행복응원
프로젝트

영역 1-2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 공존과 사회 지원 방안 조성

정책4

시민 외로움지수
개선을 위한
네이버후드 기반
연결망 구축

정책5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
공적 플랫폼
구축

정책6

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
사회자본 구축

행복지표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대상		서울시민 전체
전략		- 시민행복위원회와 시민참여를 통한 서울행복지표의 데이터 구축 - 행복실태조사를 통한 행복상태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과제	단기	• 행복실태조사 설계 및 시행 : 서울행복지표 연계, 지속적 시행 • 시민행복위원회 활동(운영협의회 등)과 시민 참여를 통한 서울행복지표 보완 • 행복 플랜 실행 부서 확장(2개 팀)
	중·장기	• 서울행복지표와 행복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및 사업성과 분석 • 행복정책담당관 설치

관련 사업

서울시

2021 시민협력국 주요업무보고

- 2020년 행복기본계획 수립, 2021년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및 시행: 행복정책(사업) 전담조직 신설(시민행복팀),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 2020년 서울행복지표(10개 영역 61개 지표) 구축, 시민행복 실태조사(시범조사) 시행, 2024서울행복플랜(안) 수립
- 2021년 서울행복지표 기반 실태조사 시행, 전략과제 수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 사업비 지원

종로구 강남구

2021 주요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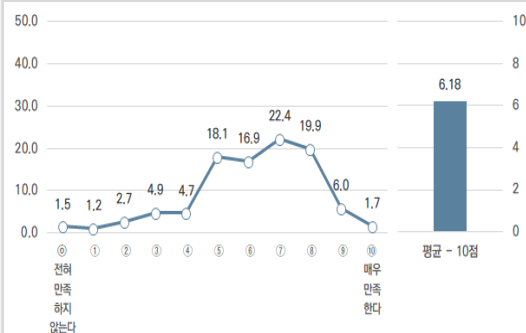
-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 안녕지수 반올림#프로젝트: 행복영향평가제 도입 및 주민 행복도 조사
- 행복드림프로젝트: 행복 교육, 행복 캠페인,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행복정책 거버넌스 구축
-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행복자문단 운영: 행복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자문
- 행복지표와 연계한 구민행복도 조사: 행복지표와 연계된 주요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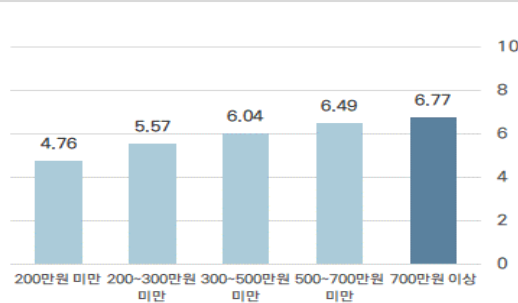
시민행복 실태조사(2021)

시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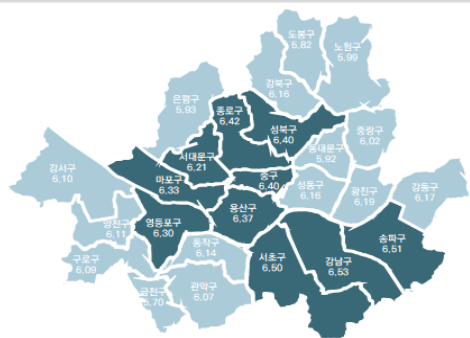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6.1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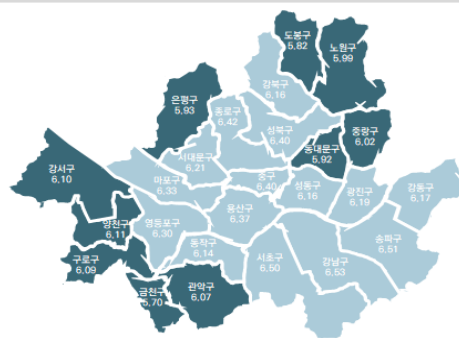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지역



행복 지표

- 10.1. 삶의 만족도 - 10.3. 긍정적 감정(긍정정서)

FGI

- “사실 소득이 많지는 않고 이 소득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더 벌려면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가족끼리 시간을 더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득이 만족스럽습니다.”(40대 남성)
- “모니터링단이요. 수시로 인터넷 상에서 정책 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요.”(40대 여성)
- “공청회는 어떤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거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사실 다 같이 말하는 분위기잖아요. 쉽게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2030 여성)
-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서울시도 시민들이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지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제도를 바꾸는지 이런 것을 답변을 해주거나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40대 남성)

대상		청·장년 1인가구
전략		대상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통한 실질적 행복제고 전략
과제	단기	-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년여성 1인가구를 위한 마음상담 지원 네트워크 구축 40대 연령 여성 1인가구, 남성 저소득층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중·장기	-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아웃소싱 - 당사자 주도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업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 (내부 자료)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신설 및 1인가구 포털 운영

- 건강한 식단 실천을 통한 식생활 개선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 1인가구 마음상담 지원
- 은둔형, 고립형 청년 지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업지원
- 병원수술 보호자 동의제도 개선

관악구

2021 주요업무계획

➢ 자살예방활동

- 주민참여 자살예방 전문봉사단체 조직 및 활성화
- 동네 의원 기반 정신과 전문의 검진 및 상담
- 1인가구 대상 IoT스마트 돌봄 서비스
- 주민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 발굴 조사 및 상담 창구 상시운영(SNS 상담창구 운영 등)
- 민관협력발굴 공조체계 강화(희망발굴단,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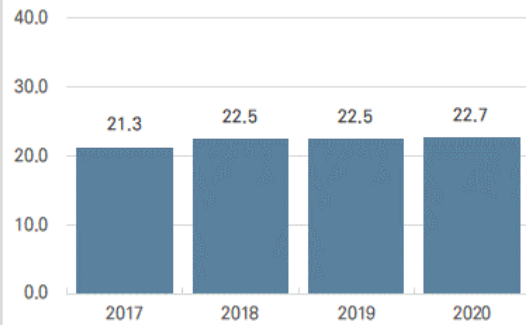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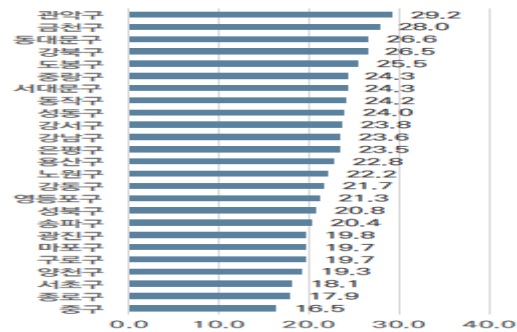
시민행복 실태조사(2021)

행정 자료

2020년 자살률(십만명당 명) 22.7명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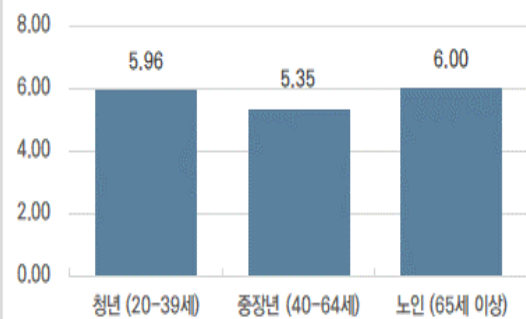


관악구 2020년 자살률 29.2명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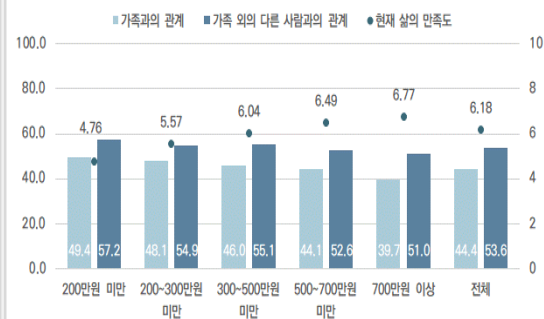


시민 조사

전체 1인가구 중 중장년 행복도 5.35점으로 낮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행복 지표

- 10.1. 삶의 만족도 - 7.8. 외로움 - 10.4. 부정적 감정(부정정서), 7.4. 주관적 건강만족도

FGI

- “일도 줄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니깐 나를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40대 여성)
-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같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2030 남성)
- “서울시도 만약에 40대가 어떤 자기 계발 이라든지 어떤 것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걸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요.”(40대 남성)
- “50대 넘어서 가면 시니어 센터라고 해서 그들을 위한 것이 따로 다 차려져 있어요. 나이별로 다 있는데 40대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모든 지원이 없어서 알바 하고 싶어도 우리는 안 뽑아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마련되면 좋겠어요.”(40대 여성)
- “저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혼자라서, 저처럼 혼자인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느끼는 막막함이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건강검진 할 때 마취할 때 보호자가 없으면 수면마취 못 한대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 갈 수도 없고.”(40대 여성)

시민 외로움지수 개선을 위한 네이버후드 기반 연결망 구축

대상		서울시민 전체
전략		지역사회 기반의 '타임광장 Time Space' 플랫폼 구축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정책 목표 구현(시간을 빌려드립니다)
과제	단기	-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지역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은행' 개념으로 운영 - 나의 시간과 타인의 시간을 서로 공유하여 관계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획해야
	중·장기	시범 사업 실시 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서울시, 시민사회 단체, 동네단위 행정주체 등과의 협력 등) 이후 확산 모델 개발

관련 사업

서울시

2021
가족담당관

사업
결과보고

서울시
1인가구
시간은행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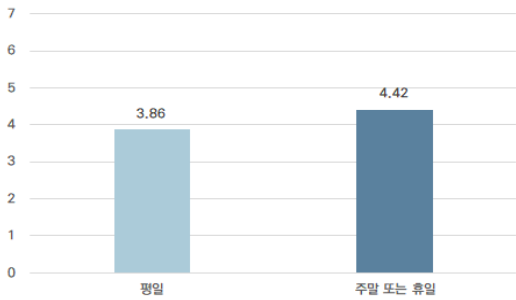


-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운영사업
 - 1인가구 시간은행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시간은행 평가지표 개발 연구 등
 - 지역별, 연령별 1인가구 시간은행 시범운영: 시간은행 회원 발굴을 위한 집밥 요리교실, 목공 및 집수리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 향후 활용방안: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시간은행 운영매뉴얼 공유 등
- 통합플러스 시간은행(서대문구)
 - 대상: 전 연령 1인가구(회원 111명) 대상
 - 시간화폐교환: 받은 시간 131시간 / 준 시간 298시간
- 세대 결합형 시간은행(관악구)
 - 대상: 청장년 고시원 거주 남성 1인가구(회원 31명) 대상
 - 시간화폐교환: 받은 시간 178시간 / 준 시간 174시간
- 자원봉사 결합형 시간은행(노원구)
 - 대상: 지역자원봉사자 및 1인가구 어르신(회원 95명) 대상
 - 시간화폐교환: 받은 시간 131시간 / 준 시간 139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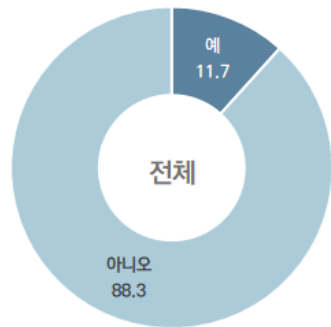
시민행복 실태조사(2021)

시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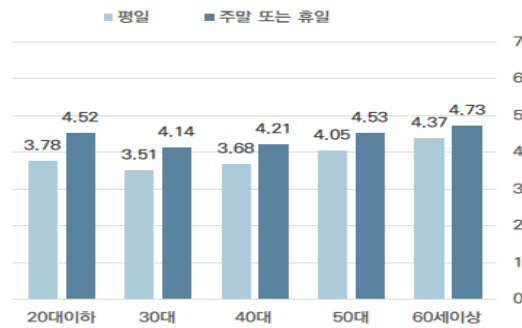
여가시간충분성(7점 척도) 평일3.86점, 주말4.4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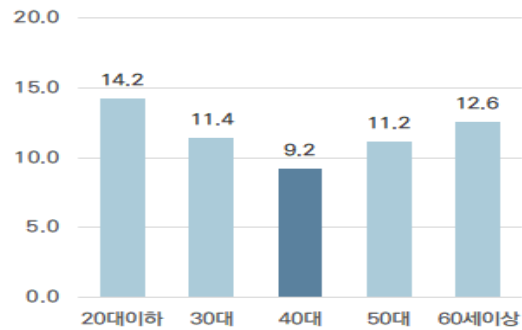
2020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11.7%에 그쳐



3, 40대의 여가시간 충분성(7점 척도)이 낮아



특히, 40대는 9.2%만 자원봉사에 참여



FGI

-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고 집에서 썩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재능기부 하겠다, 그러면 무료로 배울 수 있어서 좋고 그런 재능기부 하는 사람에게 월급 못 주는 대신 세금이든 뭐든 혜택 주고 서로가 윈윈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성화 되지 않을까.”(40대 여성)
- “여자들 자살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갑자기 고립되거나 홀로 된 사람들,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 힘들 때 전화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나눔 형식이든 봉사든 연계되어서 취미활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어요.”(40대 여성)

행복
지표

- 9.4. 자원봉사 참여율 - 9.5. 기부율, 9.1. 공적 의사결정 참여경험

감사합니다

